

참여정부 성매매·성폭력 예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2007. 11

국회의원 안 명 옥

●● 머 리 말

참여정부 성매매 · 성폭력 예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행복한 가정 · 양성평등한 사회’라는 가치를 내걸고 여성과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여정부의 여성정책 중 도드라진 부분이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근절 대책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1년 뒤인 2004년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그해 9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성매매와 성폭력 관련 관행들을 근절하려는 시도들은 많은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와 성폭력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변화가를 장악했던 성매매 관련 업소는 사라졌지만, 이들 영업소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등 사각지대로 숨어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 성매매 형태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식적인 성매매 종사자 숫자는 줄었지만, 보건당국의 감독 및 감시체계를 벗어난 실질적 성매매 종사자들에 의해 성병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본 자료집은 최근의 성매매 및 성폭력, 성희롱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들을 근거로 참여정부 성매매 · 성폭력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성매매와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7년 11월

국회의원 안 명 옥

I. 여성폭력 현황과 실태	1
1. 성매매 현황과 실태	3
2. 성폭력 현황과 실태	11
II. 참여정부 여성폭력 예방정책	17
1. 참여정부 여성폭력예방 선거공약	19
2. 참여정부 여성폭력예방정책 추진실적	20
III. 성매매방지정책 평가	29
1. 성매매집결지 단속효과	31
2.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 구매자 처벌실태	32
3. 고령화시대, 노인 성매매 증가	34
4. 탈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38
5. 성병검진대상자의 전염병 지역분포	60
6. 성매매피해여성 성병실태	64
7. 성매매여성 지원시설 관리 · 감독 실적	71
8. 해외 결혼 · 성매매 문제	74
9. 인터넷을 통한 변종 성매매 실태	78
10. 청소년 성매매 89.2% 인터넷 사용	84
IV. 성폭력예방정책 평가	91
1. 아동 성폭력문제 심각	93

2. 장애인 성폭력 상담실적	97
3. 사회적 성차별 분석결과	106
4.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110
5. 학교 내 성폭력 문제점	116

V. 성매매 · 폭력예방을 위한 향후과제 127

1. 성매매 예방을 위한 향후과제	129
2. 성폭력예방을 위한 향후과제	132

VI. 참고문헌 135

VII. 부 록 139

I

여성폭력 현황과 실태

1. 성매매 현황과 실태

가. 성매매집결지 및 업소 현황

□ 집결지 업소 수는 2004년 1,696개에서 2005년 1,061개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2007년 5월 현재 992개로 감소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 종업원 수 또한 2004년 5,717명에서 2005년 2,65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2007년 5월 현재 2,523명으로 감소 비율은 정체 상태임.

• • 성매매 집결지 현황¹⁾ • •

(단위: 개, 명)

	04.9.23		05.9.15		06. 5.10		07. 5.18.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1,696	5,717	1,061	2,653	1,097	2,663	992	2,523
서울	513	1,547	292	714	274	662	268	661
부산	133	634	101	289	112	258	86	183
대구	62	350	44	123	44	150	41	158
인천	98	232	63	115	61	89	25	67
경기	421	1,390	293	738	291	717	270	692
강원	115	291	64	138	75	142	66	127
충남	95	574	43	211	58	297	58	305
전북	91	214	72	127	81	78	81	82
전남	44	75	18	52	20	49	18	39
경북	74	170	46	86	56	139	55	129
경남	50	240	25	60	25	82	24	80

※ '03년 전국 집결지 업소 1,738개소이나 지방청별로 구분되지 않음

※ 전국 특수업태부 집결지 여성의 등록현황(지역별, 연령별),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별 검진실적 및 성매매여성 종사기간별 질환발생빈도·질환 발생 유형별 현황에 대한 자료 관리하지 않음

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집결지 현황」, 경찰청, 2007, 7

- 지역별로 보면, 대구지역은 업소 수가 2006년 44개소에서 2007년 41개소로 감소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150명에서 158명으로 8명 증가함. 충남, 전북지역은 업소 수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8개소, 81개소로 동일하지만 종업원 수는 충남 8명, 전북 4명이 증가하였음.
-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을 보면, 2007년 6월 현재 138,262개소임. 변종 풍속영업소는 9,451개소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음.

● ● 풍속영업소 영업 현황²⁾ ● ●

(단위: 개)

구분	합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숙박업	이용업	노래 연습장	(안마 시술소)	변종 풍속영업소
2003년	111,663	23,152	16,161	26,158	19,113	27,079	관련자료없음	
2004년	110,926	22,877	15,346	25,874	18,392	28,437	관련자료없음	
2005년	132,553	26,991	16,205	27,848	21,151	33,562	(955)	5,841
2006년	139,306	27,555	16,669	28,736	21,734	34,905	(993)	8,714
07. 6월	139,273	27,197	16,417	28,829	21,684	34,684	(1,011)	9,451

- 한편 스포츠 마사지 등 변종 풍속영업소는 자유업으로 등록되고 있어 영업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 및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나. 성매매자 현황

- 성매매 사범의 연령별 단속 현황을 보면, 만 18세이하 아동은 2003년 541명에서 2006년 599명으로 9.68% 증가하였고, 71세 이상은 2003년 72명에서 2006년 122명으로 69.4%나 증가하였음.

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풍속영업소 영업현황」 운영실적, 경찰청, 2007, 7

경찰청은 안마시술소를 성매매가 흔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판단해 풍속영업소로 규정해 통계를 잡고 있기도 함. 그러나 안마시술소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풍속영업소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연령별 단속현황³⁾ ● ●

(단위: 명)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계		12,739	16,951	18,508	34,795
소 년	소 계	541	587	547	599
	14세미만	2	1	1	1
	14세	8	14	12	18
	15세	31	21	31	47
	16세	44	45	60	60
	17세	95	82	80	108
	18세	130	174	139	134
	19세	231	250	224	231
성 인	소 계	12,156	15,897	17,666	33,989
	20세	260	293	208	317
	21세	357	373	238	358
	22세	424	467	372	511
	23세	528	530	448	693
	24세	476	616	533	893
	25세	482	580	612	1,139
	26-30세	2,394	3,250	3,529	7,696
	31-35세	2,092	3,070	3,785	7,884
	36-40세	1,549	2,127	2,864	6,194
	41-50세	2,296	3,015	3,529	6,137
	51-60세	891	1,084	1,113	1,652
	61-70세	335	374	347	393
	71세이상	72	118	88	122
미 상		42	467	295	207

□ 직업별 '성 매수남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총 27,488명으로 전년대비 140.3% 증가하였고, 직업별 현황을 보면 2007년도 6월 현재 총 9,415명으로 회사원 4,624명(49.1%), 자영업 1,437명(15.2%), 학생 307명(3.2%), 전문직 151(1.6%)명임.

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령별 단속 현황」, 경찰청, 2007, 7

● ● 직업별 성매수남 현황⁴⁾ ● ●

(단위: 명)

구 분	계	회사원	자영업	학생	농수산	공무원	전문직	기타
'04.9.23 ~10.22	2,352	975	458	342	20	79	478	0
'05년	11,474	4,552	2,187	1,782	123	635	2,085	110
'06년	27,488	15,650	5,120	2,156	153	790	3,178	441
07. 6. 30.	9,415	4,624	1,437	307	130	66	151	2,700

□ 연령별 성 매수남 현황을 보면, 2007년 6월 현재 30대가 4,456명으로 47.3%, 20대가 2,352명으로 24.9%, 10대는 53명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10대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 연령별 성매수남 현황⁵⁾ ● ●

(단위: 명)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04.9.23~10.22	2,352	20	727	1,060	407	114	24
'05.년	11,474	73	2,739	5,091	2,751	697	123
'06년	27,488	23	7,349	12,668	5,823	1,465	160
07. 6. 30.	9,415	53	2,352	4,456	1,815	549	190

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직업별 성매수남 현황」, 경찰청, 2007, 7

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령별 성매수남 현황」, 경찰청, 2007, 7

다. 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병 현황

- 질병관리본부의 <성병건강검진대상자 현황>에 의하면, 성병검진 대상자 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성병건강검진대상자 수를 보면, 2004년 129,309명에서 2005년 105,447명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 117,242명, 2007년 6월 현재 100,789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특수업태부의 경우 2005년 1,820명에서 2006년 1,914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유흥접객원은 2005년 83,666명에서 2006년 98,874명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지만 실제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임.

• • 성병건강검진대상자 현황⁶⁾ • •

(단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특수업태부	2,632	1,820	1,914	1,709
유흥접객원	101,046	83,666	98,874	85,204
다방여종업원	23,919	18,581	15,364	12,979
안마시술소종업원	1,712	1,380	1,090	897
합계	129,309	105,447	117,242	100,789

- <성병건강검진대상자 성병감염현황>을 보면 2004년 39,096건에서 2006년 17,357건 2007년 6월 현재 8,04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안마시술소 종업원의 경우 2005년 208건에서 2006년 257건, 2007년 6월 현재 15건으로

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병건강검진대상자 현황」, 질병관리본부, 2007, 7

늘고 있어 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전화방 등에서 행하는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음

- 2006년 특수업태부의 성병감염 건수가 1,312건으로 등록인원 대비 건수비율이 68.5%를 차지하는 것은 특수업태부 여성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성병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 성병건강검진대상자 감염현황⁷⁾ ● ●

(단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특수업태부	4,653	1,942	1,312	567
유흥접객원	30,318	18,518	13,825	6,777
다방여종업원	3,700	2,341	1,963	688
안마시술소 종업원	425	208	257	15
합계	39,096	23,009	17,357	8,047

- 2007년 6월 현재 <성병건강검진대상자 성병감염현황>을 보면 총 8,047건으로 ‘비임균성 요도염’ 3,180건(39.5%), ‘클라미디아감염증’ 2,711건(34.4%), ‘매독’ 842건(10.5%), ‘임질’ 678건(8.4%),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1,822건(22.6%), 서울지역 1,417건(17.6%), 대구지역 902건(11.2%), 경남지역 607건(7.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병 종류별로 보면 ‘비임균성 요도염’ 3,180건, ‘클라미디아감염증’ 2,711건, ‘임질’ 678건, ‘매독’ 842건으로 나타남.

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병건강검진대상자 감염현황」, 질병관리본부, 2007, 7

- 성병 종류별로 가장 높은 지역을 보면 ‘매독’의 경우 경기지역(144건)이 가장 높았고, ‘임질’은 서울지역(258건), ‘연성하감’은 강원지역(3건), ‘비임균성 요도염’은 대구지역(762건), ‘클라미디아감염증’은 경기지역(940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성병건강검진대상자 성병감염현황⁸⁾ ● ●

(단위: 명)

시·도	계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기타
계	8,047	842	678	4	3,180	2,711	632
서울	1,417	119	258	0	678	345	17
부산	428	23	19	0	231	155	0
대구	902	31	22	0	762	75	12
인천	495	28	11	0	216	218	22
광주	69	54	6	0	9	0	0
대전	263	39	23	0	86	104	11
울산	135	5	2	0	2	126	0
경기	1,822	144	52	0	278	940	408
강원	432	13	61	3	177	178	0
충북	186	11	43	0	25	107	0
충남	210	49	2	0	123	36	0
전북	160	35	13	0	9	103	0
전남	257	62	33	1	53	29	79
경북	498	68	30	0	315	53	32
경남	607	119	87	0	113	242	46
제주	166	42	16	0	103	0	5

8)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병건강검진대상자 성병감염현황」, 질병관리본부, 2007, 7

- 전체 성병 감염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매독’은 2005년 1,398건에서 2006년 1,658건, 2007년 6월 현재 84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 연도별 성병(매독) 감염현황 • •

(단위: 건)

질병 별	2005년	2006년	2007.6
매독	1,398	1,658	842

2. 성폭력 현황과 실태

가.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 참여정부 기간 동안 성폭력발생 현황을 보면, 2003년 12,511건에서 2006년도 15,326건으로 22.5% 증가하였으며, 2007년 6월 현재는 7,323건임.

• • 성폭력 발생 현황⁹⁾ • •

(단위: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발생건수	12,511	14,089	13,446	15,326	7,323

-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이 8,755건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폭력은 4,995건, 성보호가 1,616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연도별 성폭력 검거인원 대비 구속율을 살펴보면 2004년도 33.2%에서 2005년도 27%, 2006년도 23.3%, 2007년도 3월 현재 18.2%로 성폭력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구속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성폭력 다발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현재 서울(888건), 경기(758건), 인천(247건), 전남(199건) 순임.

9)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폭력 발생현황」, 경찰청, 2007, 7

● ● 성폭력 발생검거 유형별 현황¹⁰⁾ ● ●

(단위: 건)

구 분		총계	강간	성폭력	성보호
2004년	발생건수	14,089	6,959	4,264	2,866
	검거건수	13,116	6,322	3,988	2,806
2005년	발생건수	13,446	7,321	4,282	1,843
	검거건수	12,105	6,442	3,891	1,772
2006년	발생건수	15,326	8,755	4,955	1,616
	검거건수	14,157	7,932	4,663	1,562

● ● 지역별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2004)¹¹⁾ ● ●

(단위: 건)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총 계	14,089	13,116	15,018	4,990	10,028
서 울	4,055	4,004	4,787	1,306	3,481
부 산	1,005	1,038	1,229	466	763
대 구	548	560	567	202	365
인 천	797	779	864	283	581
울 산	318	314	356	169	187
경 기	2,701	2,232	2,506	899	1,607
강 원	419	392	455	169	286
충 북	386	377	422	159	263
충 남	817	712	841	284	557
전 북	438	408	488	171	317
전 남	959	889	909	292	617
경 북	669	579	713	243	470
경 남	724	606	658	272	386
제 주	240	212	219	74	145
기 타	13	14	4	1	3

1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폭력 발생검거 유형별 현황」, 경찰청, 2007, 7

1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지역별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 경찰청, 2007, 7

• • 지역별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2005)¹²⁾ • •

(단위: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총 계	13,446	12,105	13,695	3,698	9,997
서 울	3,621	3,503	4,091	780	3,311
부 산	732	706	831	229	602
대 구	586	553	578	201	377
인 천	845	810	929	274	655
울 산	298	273	278	102	176
경 기	2,866	2,290	2,561	717	1,844
강 원	389	346	390	147	243
충 북	384	342	364	126	238
충 남	720	659	739	230	509
전 북	457	398	448	124	324
전 남	1,007	886	1,000	257	743
경 북	623	535	615	205	410
경 남	705	629	689	243	446
제 주	211	174	181	63	118
기 타	2	1	1	0	1

• • 지역별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2006)¹³⁾ • •

(단위: 건)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총 계	15,326	14,157	15,851	3,703	12,148
서 울	3,994	3,928	4,776	847	3,929
부 산	977	950	1,154	262	892
대 구	507	469	507	172	335
인 천	1,020	943	1,168	312	856

1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지역별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 경찰청, 2007, 7

1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지역별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 경찰청, 2007, 7

14 참여정부 성매매·성폭력 예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울 산	324	290	301	71	230
경 기	3,205	2,737	2,831	680	2,151
강 원	437	388	465	157	308
충 북	436	415	422	127	295
충 남	1,143	1,069	870	255	615
전 북	431	387	430	109	321
전 남	1,113	1,010	1,150	242	908
경 북	714	635	694	179	515
경 남	797	717	820	239	581
제 주	225	215	260	50	210
기 타	3	4	3	1	2

• • 지역별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2007.3까지) • •

(단위: 건)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총 계	3,253	2,918	3,585	656	2,929
서 울	888	866	1,138	134	1,004
부 산	137	129	187	31	156
대 구	135	104	134	31	103
인 천	247	230	284	57	227
울 산	66	58	67	21	46
경 기	758	634	695	160	535
강 원	78	71	102	22	80
충 북	118	102	94	28	66
충 남	148	115	139	29	110
전 북	120	117	110	24	86
전 남	199	165	238	37	201
경 북	130	120	150	27	123
경 남	170	148	173	45	128
제 주	59	59	74	10	64
기 타					

- 가해자 직업별 현황을 보면, 2006년 기타가 6,557명, 피고용자 5,409명, 전문직이 379명, 공무원이 162명, 종교인이 62명으로 나타났음. 특히 공무원의 경우 2005년 97명과 비교해 볼 때 67% 증가하였음.

● ● 가해자 직업별 현황¹⁴⁾ ● ●

(단위: 명)

구 분	계	피고용자	전문직	종교가	공무원	자영자	기타
2004년	15,018	5,409	308	42	141	2,793	6,325
2005년	13,695	5,031	298	52	97	2,619	5,598
2006년	15,851	5,887	379	62	162	2,804	6,557
2007년 6월	7,800	2,882	190	-	62	1,375	3,291

1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가해자 직업별 현황」, 경찰청, 2007, 7

II

참여정부 여성폭력 예방정책

1. 참여정부 여성폭력예방 선거공약

□ 2002년 참여정부 대선당시 여성폭력예방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성매매 방지법 제정 및 친고제 폐지 등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
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1.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
구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성매매 관련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경찰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3.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및 상담소를 확
대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5.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겠습니다.
6. 성매매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겠습니다.
7. 사이버 성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8.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겠습
니다.
9. 가해자 교정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0. 초·중·고등학교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인
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 참여정부 여성폭력예방정책 추진실적

□ 참여정부의 여성폭력예방정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성매매 방지법 제정 및 신고제 폐지 등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명	평가	연도	추진실적	집행예산 (억원)	관련통계
1.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기구를 마련하겠습니다. ※ 추진부서 : 고시현(사무관)/ 권익기획팀	이행	'03	○ 민관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 구성('03.6.20)	비예산 사업	
		'04	○ 성매매방지법 국회통과('04.3.4) ○ 성매매방지법 공포('04.3.22) ○ 성매매방지법 시행('04.9.23) ○ 성매매방지법시행령 제정('04.9.23) ○ 성매매방지법시행규칙 제정('04.11.5) ○ 성매매방지기획단 회의 개최 - 1차 실무작업팀 회의('03.7.24) - 2차 기획단 회의('03.10.29) - 3차 기획단 회의('04.1.30) - 4차 기획단 회의('04.3.4) ○ 성매매방지종합대책 확정('04.3.31) ○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점검단 설치('04.11.10)-운영(1차~2차회의)	비예산 사업	
		'05	○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점검단 회의 운영(3차~7차 회의)	비예산 사업	
		'06	○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점검단 회의 운영(8차~11차 회의)	비예산 사업	
		'07.6월	○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점검단 회의 운영(12차~13차 회의)	비예산 사업	
2. 성매매 관련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경찰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 청 추진				

다.					
<p>3.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및 상담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p> <p>※ 추진부서 : 김민아(사무관)/권익기획팀</p>	이행 중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상담소 등 지원시설 운영 - 쉼터 26개소, 자활지원센터 2개소, 상담소 8개소 	29	-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상담소 등 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 확충:쉼터 12, 상담소 9,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2 - 운영:쉼터 38, 자활지원센터 2, 상담소 17,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2 ○ 자활지원 실적 - 법률지원 8,453건, 의료지원 6,814건, 직업훈련 2,135건, 창업자금 지원 31명 	67	-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상담소 등 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 확충:쉼터 1, 그룹홈 4, 상담소 12,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7 - 운영:쉼터 39, 그룹홈 4, 자활지원센터 2, 상담소 29,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9 ○ 자활지원 실적 - 법률지원 24,170건, 의료지원 13,935건, 직업훈련 3,658건, 창업자금 지원 12명, 신용회복지원 136명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설립·운영('05.11) 	141	연 취업인원 329명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상담소 등 지원 시설 확충 및 운영 - 확충:쉼터 2, 그룹홈 1, 자활지원센터 1,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3 - 감축:상담소 2 - 운영:쉼터 41, 그룹홈 5, 자활지원센터 3, 상담소 27,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2 ○ 자활지원 실적 - 법률지원 17,343건, 의료지원 18,841건, 직업훈련 4,299건, 창업자금 지원 9명, 신용회복지원 20명, 일자리지원 52명 	189	연 취업인원 457명
		'07.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상담소 등 지원 시설 확충 및 운영 - 확충:그룹홈 1, 자활지원센터 1, 상담소 1 - 감축: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 - 운영:쉼터 41, 그룹홈 6, 자활지원센터 4, 상담소 28,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1 ○ 자활지원 실적 - 법률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통계자료 취합중 	80	-

			- 창업자금 지원 1명, 신용회복지원 21명, 부처연계형 동료상담원 일자리 지원 등 110명		
<p>4.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p> <p>※ 추진부서 : 김은진(주무관)/ 권익기획팀</p>	이행	'03	○ 외국인피해여성지원시설 설치운영 : 서울, 경기 등 2개소 - 지원내용 : 외국여성에 대한 무료숙식제공, 안전귀국·통역·법률·의료·교육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1	연 보호인원 124명
		'04	○ 외국인피해여성지원시설 운영 : 서울, 경기 등 2개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규정 마련('04.3)	1	연 보호인원 150명
		'05	○ 외국인피해여성지원시설 운영 : 서울, 경기 등 2개소	1	연 보호인원 173명
		'06	○ 외국인피해여성지원시설 운영 : 서울, 경기, 경남 등 3개소	1	연 보호인원 284명
		'07.6월	○ 외국인피해여성지원시설 운영 : 서울, 경기, 경남 등 3개소	0.4	
<p>5.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겠습니다.</p>	법무부 추진				
<p>6. 사이버 성폭력에 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p> <p>※ 추진부서 : 이태호(주무관)/ 인권보호팀</p>	이행	'03	○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 - (사)부산여성의전화 : 온라인상에서의 여성폭력 추방운동('03) - 청주 YWCA : 사이버 음란문화 반대 운동('03)	0.2	
		'04	○ (사)여성중앙회 : 제2회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및 커뮤니티 육성 프로젝트 추진('04) ○ 사이버상 성희롱 대책 세미나 개최(12.18) - 주제 :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 주최 : 여성가족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0.3	
		'05	○ 안티성폭력페스티벌 지원 -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심각성 등 홍보 ○ 인터넷 포털서비스 배너광고 -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관련 광고 게재	0.5	
		'06	○ 홈페이지 사이버성폭력 예방코너 운영 ○ 성폭력 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추진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one-stop서비스	비예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선포식 및 캠페인 후원 - 행사명 : '폭력없는 평화사회 시민의 힘으로' - 주관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회 6개 단체 - 일시 및 장소 : '06.4.11 청계천 광장 		
		'07.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대책단 회의안건으로 토의(4.25) - 사이버 성폭력 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정보통신부) 	비예산사업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무료법률구조 지원 시행('03.1월)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체결('02.12월) - 구조실적 : 2,276건 	3.2억	
<p>7.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p> <p>※ 추진부서 : 서영학(사무관)/인권보호팀</p>	이행 중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개소 운영 - 서울('04.6.18.개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실적 : 2,722건 ○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행('04.9월) - 지원시설 :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73개소 - 프로그램 참여자 : 2,735명 ○ 가정·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사업 시행('04.9월) - 프로그램 참여자 : 370명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월, 4월, 5월) -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 신고·인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 - 가정폭력 치료비 지원 구상권 행사요건 강화 등 	5.03억 8.3억 13.8억 4억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 여성폭력피해자 진료 지원 협약(1월) -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지원 ○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운영 - 영남('05.6.9.개소), 호남('05.6.29.개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무료법률구조 지원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성폭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구조실적 : 2,908건 ○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10억 10.9억 17.5억	예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설 :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86개소 - 프로그램 참여자 : 3,701명 ○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간 : '04.12.29 ~ '05.8.31 -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가정·성폭력 피해자 중장기 보호시설 운영(6개소) ○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480명) 	2.9억	예산액 예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간 : '04.12.29 ~ '05.8.31 -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가정·성폭력 피해자 중장기 보호시설 운영(6개소) ○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480명) 	12.7억 2.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간 : '04.12.29 ~ '05.8.31 -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가정·성폭력 피해자 중장기 보호시설 운영(6개소) ○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480명)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령 시행('06.11.29 공포) - 3년마다 전국 가정·성폭력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피해자 보호범위 확대, 보호시설의 종류 다양화 - 상담원 교육기관 신고제 도입 - 가정·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구상권을 임의사항으로 변경 등 ○ 여성·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체계 홍보강화 - 지하철, 옥외광고물, 무가지신문, 리플렛 배포, 인터넷 검색어 광고, 안내문 발송 등 ○ 가정·성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무료법률구조 지원 - 가정·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성폭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구조실적 : 3,487건 ○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100개소) - 프로그램 참여자 : 4,074명 ○ 가정·성폭력 피해자 중장기 보호시설 운영(6개소) ○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405명) ○ 여성·학교·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14개소) 설치운영 	-	집행액 예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마다 전국 가정·성폭력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피해자 보호범위 확대, 보호시설의 종류 다양화 - 상담원 교육기관 신고제 도입 - 가정·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구상권을 임의사항으로 변경 등 ○ 여성·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체계 홍보강화 - 지하철, 옥외광고물, 무가지신문, 리플렛 배포, 인터넷 검색어 광고, 안내문 발송 등 ○ 가정·성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무료법률구조 지원 - 가정·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성폭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구조실적 : 3,487건 ○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100개소) - 프로그램 참여자 : 4,074명 ○ 가정·성폭력 피해자 중장기 보호시설 운영(6개소) ○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405명) ○ 여성·학교·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14개소) 설치운영 	1.3억 14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마다 전국 가정·성폭력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피해자 보호범위 확대, 보호시설의 종류 다양화 - 상담원 교육기관 신고제 도입 - 가정·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구상권을 임의사항으로 변경 등 ○ 여성·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체계 홍보강화 - 지하철, 옥외광고물, 무가지신문, 리플렛 배포, 인터넷 검색어 광고, 안내문 발송 등 ○ 가정·성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무료법률구조 지원 - 가정·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성폭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구조실적 : 3,487건 ○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100개소) - 프로그램 참여자 : 4,074명 ○ 가정·성폭력 피해자 중장기 보호시설 운영(6개소) ○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405명) ○ 여성·학교·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14개소) 설치운영 	18억 3.0억 2.7억 2.15억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07.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쉼터 일반예산으로 지원 : 3개소 ○ 가정·성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무료법률구조 지원 - 가정·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97개소) ○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 ○ 폭력피해여성 치료기관 확대(276개소→324개소) ○ 여성·학교·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14개소 운영 	2억 14억	예산액 예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97개소) ○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 ○ 폭력피해여성 치료기관 확대(276개소→324개소) ○ 여성·학교·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14개소 운영 	16.8억 2.4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 ○ 폭력피해여성 치료기관 확대(276개소→324개소) ○ 여성·학교·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14개소 운영 	17.7억	예산액

8. 가해자 교정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추진부서 : 김은형(주무관)/인권보호팀	이행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단계적 지원 확대																												
			<table><tr><td>구 분</td><td>'04</td><td>'05</td><td>'06</td><td>'07</td></tr><tr><td>예산액(백만원, 국비 기준)</td><td>4,519</td><td>5,472</td><td>6,808</td><td>8,026</td></tr><tr><td rowspan="3">지원시설</td><td>가정·성폭력 상담소</td><td>123개</td><td>130개</td><td>131개</td><td>149개</td></tr><tr><td>통합상담소</td><td>10개</td><td>10개</td><td>10개</td><td>10개</td></tr><tr><td>보호시설</td><td>51개</td><td>57개</td><td>74개</td><td>78개</td></tr></table>	구 분	'04	'05	'06	'07	예산액(백만원, 국비 기준)	4,519	5,472	6,808	8,026	지원시설	가정·성폭력 상담소	123개	130개	131개	149개	통합상담소	10개	10개	10개	10개	보호시설	51개	57개	74개	78개		
		구 분	'04	'05	'06	'07																									
		예산액(백만원, 국비 기준)	4,519	5,472	6,808	8,026																									
		지원시설	가정·성폭력 상담소	123개	130개	131개	149개																								
통합상담소	10개		10개	10개	10개																										
보호시설	51개		57개	74개	78개																										
		'03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관: 성공회 대학교 - 연구기간: '03. 03 ~ 11월 - 개발프로그램 배포(12월) ·전국보호관찰소 및 상담소등 250개소	0.35억																											
		'04	○ 2004년부터 복권기금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실시('04.9월) - 프로그램 참여자 : 1,667명	34억	예산액																										
		'05	○ 2005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참여자 : 3,925명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 '04.12.29 ~ '05. 8.31 - 사도 및 보호시설 등 배포('05.11월)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 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추진함.	28억 1.7억	예산액																										
		'06	○ 2006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참여자 : 4,469명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시행('06.5월) - 프로그램 참여자 : 301명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효과성분석 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복지연구소 - 연구기간 : '06.8.25 ~ '07.8.25	27억원 2.0억원 0.76억원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9. 초, 중, 고등학교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 화하고 일반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 화하겠습니다. ※ 추진부서 : 조용 수(사무관)/ 권익 기획팀 동유주(주무관)/ 인권보호팀	이행	'07.6 월	○ 2007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 가정폭력상 담소 108개소 지원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 성폭력상담소 13개소 지원	24억원 2억	예산액 예산액
		'03	○ 성매매 예방 TV, 라디오 홍보광고	5	
		'04	○ 홍보 인쇄물 제작·배포 - 법 해설서(6천부, '04.5), 정부대책 설명자료(10만부, '04.12) -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성매매방지법 설명(50만부, '04.9) ·탈성매매용(10만부, '04.10) ○ 인터넷 광고 : 법시행 홍보('04.9~10) - 포털사이트 2, 뉴스사이트 1, 성인사이트 1 ○ 성매매방지법 시행 홍보('04.9~10, 85개 전광판) ○ 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 국민의식조사 실시 ○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 성매매예방 교육 의무화 성매매 방지법에 규정('04.3월) ○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제작·배포 - 성폭력예방리플릿 제작·배포 · 수도권 보육시설 아동 대상 - 성폭력예방 교육영상물(CD) 제작·배포(전국사 도교육청)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홍보자료(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작·배포 : 의료기관 등	3	
		'05	○ 탈성매매 자활사례 수기 공모 및 자활사례집 제작·배포('04.12~'05.6월) ○ 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 국민의식조사 ○ 성매매 방지정책관련 공무원 교육 : '05년 74명 ○ 건전한 성문화 조성 홍보사업(화이트 타이 캠페 인) ○ 1366 홍보책자 외국어판 리플릿 제작 배포(28만 부)	4	
		'06	지하철 광고 : 성매매 불법성 홍보('06. 2월) ○ 성매매 방지정책 관련 공무원 교육 : '06년 244 명 ○ 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 국민의식조사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예방추진(포털사이트 4 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시민감시단(9개단체) ○ 연말 라디오 홍보 ○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리플렛 200만부 제작배포('06.11) ○ One-Stop 센터 동영상 제작 및 송출('0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전광판 및 지하철 광고 ○ 무가지신문 및 인터넷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 홍보('06.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광판 광고 : 성매매불법성 홍보('06.5~현재, 915개소) ○ 여성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피해자지원시설에 관한 안내문 발송 	비예산 사업	
		'07.6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행사 개최(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사, 관련 시민단체 등 4백여 명 참석 ○ 성매매 방지정책관련 공무원 교육(상반기) : 91명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광판 광고 : 성매매불법성 홍보('915개소) ○ 전광판 광고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전국 지자체 전광판 홍보(514개소) 	비예산 사업	

- 참여정부는 여성폭력예방정책 실적을 보면 성매매특별법 제정, 성매매피해 여성 자활지원사업 강화 및 확대, 강력한 성매매사범 단속 등으로 성매매 업소가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홍보하고 있음.



성매매방지정책 평가



1. 성매매집결지 단속효과

-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집결지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 그러나 집결지 업소 수는 2004년 1,696개에서 2005년 1,061개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2006년 1,97개 2007년 5월 현재 992개로 감소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 종업원 수 또한 2004년 5,717명에서 2005년 2,65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2006년 2,663명 2007년 2,523명으로 감소 비율은 정체 상태임.

● ● 성매매 집결지 현황¹⁵⁾ ● ●

(단위: 명)

	04.9.23		05.9.15		06. 5.10		07. 5.18.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1,696	5,717	1,061	2,653	1,097	2,663	992	2,523

- 이는 전체 집결지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를 위한 계획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집결지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결지 정비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집결지 정비 계획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함.

1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집결지 현황」, 경찰청, 2007, 7

2.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 구매자 처벌실태

- 참여정부의 성매매 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검거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 12,739명에서 2006년 34,795명으로 63.4% 증가함. 2007년도 6월 현재 성매매 사범자는 ‘업주 등 관련자’가 1,957명, ‘성 매수자’ 9,415명, ‘성매매 여성’ 2,008명임.
- 그러나 검거된 이후의 구속조치 현황을 보면, 2003년 1,218건으로 9.56%의 구속율을 보이다가 2006년도 569건으로 1.6%, 2007년 6월 현재 197건으로 1.47%로 점점 낮아져 실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성매매 사범 중 업주 및 관련자가 2006년도 3,653건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한 것은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 구매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¹⁶⁾ ● ●

(단위 : 명)

구 분	검거인원	조 치		성매매 사범		
		구 속	불구속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2003년	12,739	1,218	11,521			
2004년	16,951	1,607	15,344	2,824	10,180	3,947
2005년	18,508	829	17,679	4,071	11,474	2,963
2006년	34,795	569	34,226	3,653	27,488	3,654
2007.6	13,380	197	13,183	1,957	9,415	2,008

※ 2003년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전으로 성매매사범에 대한 통계 구분되지 않음

※ 성매매사범 증가는 ‘04.9. 23 성매매특별법시행 후 성매수납을 적극 처벌하고 영업장부·신용카드전표 등에 대한 추적수사 등 성매매 수사기법 개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1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사범 단속현황」, 경찰청, 2007, 7

- 성매매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3,014명이며 처분현황을 보면 구약식 2,153명, 구공판 443명, 불기소처분이 12,256명, 성매매보호 사건송치 95명, 기타 708명임.

● ● 성매매사범 처리현황¹⁷⁾ ● ●

(단위 : 명)

구분	접수 (신수)	처 분					
		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성매매보호 사건송치	기타
2004년	15,787	15,117	1,147	6,104	6,789	58	1,019
2005년	17,248	15,820	815	6,040	7,629	305	1,031
2006년	33,747	31,794	804	5,783	23,019	384	1,804
2007년 (1월~5월)	13,014	15,655	443	2,153	12,256	95	708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성매매 알선·인신매매를 대폭 축소하고 탈 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단속의 어려움과 함께 강도 높은 처벌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1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사범 처리현황」, 경찰청, 2007, 7

3. 고령화시대, 노인 성매매 증가

- 성매매 사범의 연령별 단속 현황을 보면, 만 18세이하 아동은 2003년 541명에서 2006년 599명으로 9.68% 증가하였고, 71세 이상은 2003년 72명에서 2006년 122명으로 69.4%나 증가하였음.

● ● 연령별 단속현황¹⁸⁾ ● ●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계		12,739	16,951	18,508	34,795
소 년	소 계	541	587	547	599
	14세미만	2	1	1	1
	14세	8	14	12	18
	15세	31	21	31	47
	16세	44	45	60	60
	17세	95	82	80	108
	18세	130	174	139	134
	19세	231	250	224	231
성 인	소 계	12,156	15,897	17,666	33,989
	20세	260	293	208	317
	21세	357	373	238	358
	22세	424	467	372	511
	23세	528	530	448	693
	24세	476	616	533	893
	25세	482	580	612	1,139
	26-30세	2,394	3,250	3,529	7,696
	31-35세	2,092	3,070	3,785	7,884
	36-40세	1,549	2,127	2,864	6,194
	41-50세	2,296	3,015	3,529	6,137
	51-60세	891	1,084	1,113	1,652
	61-70세	335	374	347	393
	71세이상	72	118	88	122
미 상		42	467	295	207

18)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령별 단속 현황」, 경찰청, 2007, 7

- 최근 성매매사범 중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할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각종 성병에 걸렸더라도 터놓고 얘기할 창구가 없는 실정임.
- 참여정부는 성매매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의 시설과 장애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성매매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성매매 예방교육은 부재함.
- 본격적인 고령화시대 도래에 즈음해 노인들을 위한 성교육 및 성매매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12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에서 화장을 질게 한 중년 여성이 노인들에게 술을 팔고 있다. 이 노인들은 중년의 여성을 '이쁜아' 라고 불렀다. (경북매일신문 제공/노컷뉴스 제휴사)

노인들의 성(性)이 흔들리고 있다.¹⁹⁾

-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신규 에이즈감염 통계를 보면 2000년 10명에 머물렀던 60세 이상 에이즈 감염인은 2001년 21명, 2003년 26명, 2005년 41명, 지난해 56명으로 6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60세 이하 연령층은 감소 추세다. 이처럼 60세 이상 노년층 사이에서 성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 12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공원 한편에 마련된 벤치에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 수십 여 명이 모여 있다. 이들 노인들 중 유독 화장을 짙게 한 50~60세 가량 돼 보이는 중년여성들이 눈에 띈다. 모두 큰 가방을 하나씩 메고 노인들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곧 한 60대 여성이 70대로 보이는 한 노인과 몇 마디를 나눈 뒤 가방에서 술과 차를 꺼내 자리를 잡는다. 이윽고 흥정이 시작된다. 술 값을 치르는 듯 돈도 오고간다.
- 30여분 뒤 두 사람은 공원 외곽에 소재한 여관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또 다른 여성도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고 한 노인과 술을 마시며 짙은 농담을 주고받는다. 30여분 뒤 이 여성도 술을 마시던 노인과 현금을 주고받은 뒤 공원에서 사라졌다. 한 노인은 “저 여자들은 속칭 ‘두류공원 돛자리 아지매’라고 불리는 성매매 여성들이다”며 “재미삼아 잠자리를 했다가 성병 걸리기 십상이다. 실제로 성병에 걸린 노인들도 많다”고 전했다.
- 같은 날 중구 달성공원. 공원 입구와 건너편 도로에서 50대는 죽히 넘어 보이는 중년여성 5~6명이 서성인다. 공원으로 나온 노인들과 이미 아는 듯 눈인사를 나누며, 가방에서 박카스 등을 꺼내 사서 마실 것을 권한다. 립스틱을 짙게 바른 탓인지 누구나 이 여성들을 알아볼 수 있다. 모두 큰 가방에 술과 박카스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호객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복장 역시 여느 중년 여성들과 달리 화려하다.
- 공원에서 만난 한 노인은 “입술을 빨갛게 바른 여자들은 모두 성매매를 하는 전문 여성들이다”며 “여기서는 일명 ‘달성공원 박카스 아지매’로 통한다”고 말했다.

◆ 위험한 성매매

- 두류공원에서 노인들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 단체에 따르면 공원 노인들 사이에서 성매매는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공원 주변 여관의 경

우, 낮 시간은 거의 공원 노인들의 이용이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는 것. 속칭 '돛자리 아지매'와 '박카스 아지매'로 통하는 중년 여성들의 화대는 평균 2만~5만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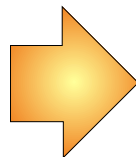
- 나이와 생김새, 시간에 따라 화대는 천차만별. 1차로 공원에서 맥주와 소주를 마시면 1만원 가량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공원에서 만난 한 노인은 귀띔했다. 문제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성매매 중년 여성들로 인해 노인들의 성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들 여성들은 일반 주민으로 분류돼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기적인 성병 방지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
- 공원 봉사단체 관계자는 “공원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노인들은 각종 성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며 “이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성병에 걸렸더라도 이를 서로에게 터놓고 얘기하는 노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이다.

4. 탈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 참여정부는 탈 성매매 여성의 다양한 수요와 적합한 대안마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업소 및 자활까지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07년도 7월 현재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41개소, 그룹홈 6개소, 자활지원센터 4개소, 상담소 28개소,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1개소, 외국인 피해여성 지원시설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의료, 직업훈련, 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한편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추방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기업 등의 불건전한 접대문화의 개선을 촉구하였음.

현 행

- 자활개념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달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차 존재
- 직업훈련 이후 취업창업에 이를 때까지 실질적인 자활 숙련과정(인큐베이팅) 미흡



개 선

- 자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유형별 입소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의 기반 마련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2007년 7월 현재 총 42개소로 일반 27개소 청소년 지원시설 15개소이며 지원 단가는 1인당 약 2,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현황²⁰⁾ ● ●

(단위: 명)

시도	시설명(설치신고일)	입소정원 (‘06.12월말기준)	입소현원 (‘06.12월말기준)	시설종류
서울 (14)	W-ing(‘66.4)	25	14	일반
	한국 여성의 집(‘87.2.13)	25	22	일반
	평화의 샘(00.6.02)	12	8	청소년
	씨튼해바라기의 집(‘99.9.28)	9	14	청소년
	유프라시아의 집(‘99.6.29.)	14	24	청소년
	다시함께쉼터(2003.9.)	10	10	일반
	나자렛성가정공동체(‘04.1.28)	19	12	일반
	여울쉼터(‘04.3.5)	10	10	일반
	마인하우스(00.1.4)	12	10	일반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98.1.15)	13	17	청소년
	휴먼케어센터(‘03.11.17)	10	10	일반
	우리들쉼자리(‘00.6.10)	9	6	청소년
	너른쉼터(‘05.3.9)	10	8	일반
	막달레나의 집(‘05.8.26)	12	14	일반
부산 (5)	구세군 쉼리홈(‘63.04.1,2007.3.1)	30	17	청소년
	해뜨는 집(‘01.12.26)	22	8	일반
	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54.06.19)	50	22	청소년
	살림쉼터(‘05.12.1)	12	12	일반
	부산 여성의 집(‘06.6.26)	12	11	일반
대구(4)	가톨릭푸름터(‘62.7.26)	25	19	청소년
	수지의 집(‘98.11.5)	14	10	청소년
	무명(‘04.8.13)	13	11	일반
	소망의 집(‘06.1.4)	14	13	일반
광주(1)	한올지기(‘03.12.10)	9	10	일반
인천(1)	강강술래(‘05.11.16)	14	5	일반
대전(2)	구세군 정다운집(‘89.12.30)	30	15	일반
	우리청소년쉼자리(00.11.6)	13	12	청소년
울산(2)	성심새롬터(‘02.5.23)	11	8	청소년
	울산YWCA 씨밀레(‘06.2.2)	14	11	일반

2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경기(3)	평택 새옴터 부설 쉼터('03.8.14)	10	10	일반
	열린터('05.12.22)	14	14	일반
	봄뜰('07.2.2)	8	3	일반
	나루('07.7.15)	10	2	일반
강원(1)	선히원('04. 2. 9.)	20	8	청소년
충남(1)	여신('93.10.25)	20	12	일반
전북(1)	민들레('04.02.23)	14	13	일반
전남(2)	여수사랑의 집('92.4.1)	19	15	청소년
	새시로 쉼터('06.8.9)	9	7	일반
경남(3)	경남 범숙의 집('97.6.29)	25	25	청소년
	로템의 집('01. 5. 29)	20	20	청소년
	해바라기쉼자리('00.1.11)	10	12	일반
제주(1)	'불턱'('04.3.10)	11	3	일반
합계		653	505	

□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현재 전국에 28개소가 설치·운영중이며 1개소 당 연간 약 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자활지원센터는 현재 4개소가 운영중이며 1인당 월 44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 ● 자활지원센터 현황²¹⁾ ● ●

(단위: 개)

지역	시설명
계	4개소
경 기	새옴터
전북	여성자활지원센터
인천	인천여성의전화부설 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
부산	숲

□ 그룹홈은 공동생활가정으로 현재 6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2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자활지원센터 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 ● 그룹홈 현황²²⁾ ● ●

(단위: 개)

지역	시설명	정원	현원 (‘06.12월말 기준)
계	6개소	38	19
서울	소소뜨라	7	4
서울	새꿈터	5	3
서울	ing	5	3
전북	민들레	7	3
부산	살림	7	4
경기	샘	7	2 (‘07.7.5 기준)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은 현재 3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현황²³⁾ ● ●

(단위: 개)

지 역	시 설 명	비 고
계	3개소	
서울	벗들의집	
경기	엘피스의 집	시범사업운영
경남	늘푸른 쉼터	“

□ 집결지 현장지원센터는 현재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2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그룹홈 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2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 ●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현황²⁴⁾ ● ●

(단위: 개)

구분	지 역	사업수행주체	시행始期
시범사업 지역	부산 완월동	살림상담소	'04.11월
	인천 송의동·학익동	(사)인천여성의전화	'04.11월
'05.사업시행 지역	서울 용산	막달레나의 집	'05.9월
	서울 천호동	쏘나의집	'05.9월
	부산 범전동	부전성매매피해상담소	'05.9월
	경기 성남 중동	(사)경원사회복지회	'05.9월
	경기 파주	파주여성인권센터	'05.9월
	전북 전주 서노송동	전북여성인권센터	'05.10월
'06.사업시행지 역	서울 하월곡동	자립지지공동체	'06.4월
	서울 전농동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룸	'06.4월
	대구 도원동	대구여성회관	'06.3월
계		11개소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18개, 부산이 7개, 경기도가 6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충북과 경북지역은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2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²⁵⁾ ● ●

(단위: 개)

연도	종류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계	30	11	3	2	-	-	2	1	3	1	-	1	-	1	1	4	-
	중장가시설	11	2	2	1	-	-	1	1	-	-	-	1	-	1	-	2	-
	일시보호소	15	7	1	1	-	-	1	-	1	1	-	-	-	-	1	2	-
	자활지원센터	2	1							1								
	외국인 시설	2	1							1								
2004	계	42	15	3	3	-	1	2	1	2	2	-	1	1	1	2	4	1
	중장가시설	26	11	1	3	-	1	1	-	2	1	-	-	1	-	2	2	1
	일시보호소	12	3	2	-	-	-	1	1	-	1	-	1	-	1	-	2	-
	자활지원센터	2	1							1								
	외국인 시설	2	1							1								
2005	계	47	20	4	3	1	1	2	1	4	2	-	1	2	1	1	3	1
	일반지원시설	22	10	2	1	1	1	1	-	2	-	-	1	1	-	-	1	1
	청소년지원시설	17	5	2	2	-	-	1	1	-	2	-	-	-	1	1	2	-
	자활지원센터	2	1							1								
	외국인 시설	2	1							1								
	그룹홈	4	3											1				
2006	계	52	19	6	4	2	1	2	2	4	1	-	1	3	2	-	4	1
	일반지원시설	26	10	3	2	1	1	1	1	2	-	-	1	1	1	-	1	1
	청소년지원시설	15	5	2	2	-	-	1	1	-	1	-	-	-	1	-	2	-
	자활지원센터	3				1				1				1				
	외국인 시설	3	1							1							1	
	그룹홈	5	3	1										1				
2007 (6월 말 기준)	계	54	18	7	4	2	1	2	2	6	1	-	1	3	2	-	4	1
	일반지원시설	26	9	3	2	1	1	1	1	3	-	-	1	1	1	-	1	1
	청소년지원시설	15	5	2	2	-	-	1	1	-	1	-	-	-	1	-	2	-
	자활지원센터	4		1		1				1				1				
	외국인 시설	3	1							1							1	
	그룹홈	6	3	1						1				1				

□ 성매매집결지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충북과 관광도시인 제주에 집결지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점, 그리고 경북지역은 2007년도

2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55개 업소와 129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지원시설이 전무한 것은 정부의 성매매단속 및 관리와 지원정책이 지역별로 골고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2,523 백만원에서 2007년 5,621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122.7% 증가하였으며 그 중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는 2006년 291백만원에서 2007년 9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하였음.

•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예산현황²⁶⁾ • •

(단위: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523	2,552	4,826	4,621	5,621
지원시설 운영·기능보강비	2,229	2,258	4,532	4,230	4,575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94	194	194	291	951
외국인지원시설 운영·사업비	100	100	100	100	95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실적을 보면 의료지원은 2004년 5,945건에서 2006년 10,183건으로 4,238건 증가하였으며 직업훈련지원은 2004년 2,109건에서 3,419건으로 1,310건 증가하였음.

-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24개 업체에 31명, 2005년 10개 업체에 12명, 2006년 9개 업체에 9명, 2007년 상반기 동안 1개 업체에 1명을 지원하는 등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수요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2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예산지원 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지원실적²⁷⁾ ● ●

(단위: 개)

연도	구분	의료지원	직업훈련 지원
2004	계	5,945	2,109
	쉼터	5,856	2,109
	외국인지원시설	89	0
2005	계	8,748	2,265
	쉼터	8,049	2,228
	자활지원센터	533	37
	외국인지원시설	166	0
2006	계	10,183	3,596
	쉼터	9,698	3,419
	자활지원센터	355	177
	외국인지원시설	130	0

● ●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지원현황²⁸⁾ ● ●

(단위: 명)

연도\업종	음식업	유통업	의류 판매	건강 관리	비디오점	미용업	화훼	간판 제작	기타	합계
계	17 (23)	4 (5)	7 (8)	7 (8)	2 (2)	1 (1)	2 (2)	1 (1)	3 (3)	44 (53)
2004	12 (16)	4 (5)	2 (3)	1 (2)	2 (2)	1 (1)	1 (1)	1 (1)	-	24 (31)
2005	5 (7)	-	2 (2)	1 (1)	-	-	1 (1)	-	1 (1)	10 (12)
2006	-	-	3 (3)	5 (5)	-	-	-	-	1 (1)	9 (9)
2007.6.	-	-	-	-	-	-	-	-	1 (1)	1 (1)

※ 기타업종 : 중장비 대여, 영어교육, 청소업

2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지원실적」, 여성가족부, 2007, 7

28)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지원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 집결지 현장 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1개소 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종사자 수는 80명임.

• •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현황('07. 7월 현재)²⁹⁾ • •

(단위: 명)

구분	지 역	사업수행주체	종사자수	시행始期
시범사업 지역	부산 완월동	살림상담소	10	'04.11월
	인천 송의동·학익동	(사)인천여성의전화	6	'04.11월
'05.사업 시행지역	서울 용산	막달레나의 집	6	'05.9월
	서울 천호동	쏘냐의집	6	'05.9월
	부산 범전동	부전성매매피해상담소	6	'05.9월
	경기 성남 중동	(사)경원사회복지회	6	'05.9월
	경기 파주 (연풍리·대능리)	파주여성인권센터	9	'05.9월
	전북 전주 서노송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6	'05.10월
'06.신규 시행지역	서울 하월곡동	자립지지공동체	12	'06.4월
	서울 전농동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름	6	'06.4월
	대구 도원동	대구여성회관	7	'06.3월
계		11개소	80	

- 2006년도 집결지 사업내용별 지원실적을 보면 상담건수는 총 20,954건으로 전년대비 56.1% 증가하였고 생계지원인원은 696명으로 전년대비 64.9%, 의료지원은 621명으로 62.9%, 법률지원은 158명으로 113.5%, 직업훈련지원은 383명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하였음.

- 탈 업소 및 진로유형을 보면, 2006년도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성매매 여성 967명 중 탈업소 인원은 533명으로 55.7%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음.

29)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 ● 집결지 사업내용별 지원실적³⁰⁾ ● ●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분	상담 (건)	생계지원금		의료지원		법률 지원		직업훈련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4	897	162	60	83	21	5	12	23	24
2005	13,417	422	1,094	381	369	74	19	225	218
2006	20,904	696	1,379	621	655	158	79	383	397

● ● 탈업소 및 진로유형³¹⁾ ● ●

(단위 : 명)

연도	참여인원	탈업소 인원	탈업소율(%)
2005	541	246	45.5
2006	957	533	55.7

□ 2006년도 탈업소 진로유형을 보면, 533명 중 시설입소가 167명, 귀가가 162명, 취업 99명, 재유입 40명, 창업 6명, 진학 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 탈업소 및 진로유형³²⁾ ● ●

(단위: 명)

구분	탈업소								
	인원계	취업	진학	창업	시설 입소	재유입	귀가	미상	기타
2005	246	59	0	5	7	26	88	38	23
2006	533	99	4	6	167	40	162	31	24

□ 집결지 내 각종 지원 강화와 경찰의 단속강화, 집결지 폐쇄추진이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탈성매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3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집결지 사업내용별 지원실적」, 여성가족부, 2007, 7

3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탈업소 및 진로유형」, 여성가족부, 2007, 7

3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탈업소 및 진로유형」, 여성가족부, 2007, 7

□ 성매매피해자 의료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5,856건에서 2006년 13,543건으로 131.2%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가장 많은 의료진료는 신경정신과(2,237건)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내과 2,080건, 산부인과 2,014건으로 나타났음. 특히 신경정신과는 2004년과 비교해 볼 때 1,657건(287%)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음.

□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업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반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음.

• • 성매매 피해자 의료지원 실적³³⁾ • •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치과	외과	안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한방	기타
2004	합계	5,856	1,053	290	207	875	1,230	578	497	1,126
2005	계	10,472	1,399	880	366	1,455	2,028	995	953	2,396
	합계	8,049	1,196	749	293	1,070	1,527	770	673	1,771
	상담소	2,423	203	131	73	385	501	225	280	625
2006	계	13,543	1,773	1,078	511	2,080	2,014	2,237	1,099	2,751
	합계	9,698	1,285	663	391	1,523	1,364	1,724	748	2,000
	상담소	3,845	488	415	120	557	650	513	351	751

□ 전국 성매매 피해상담소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말 현재 총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22,257건에서 2006년 33,839건으로 최근 4년간 11,582건 증가하였으며 2005년부터 점차 감소추세에 있

3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자 의료지원 지원실적」, 여성가족부, 2007, 7

음. 2006년도 상담방법으로는 내방·방문이 18,136건, 전화상담이 14,078건, 사이버상담이 680건, 기타가 945건임.

● ● 성매매피해상담소 현황³⁴⁾ ● ●

(단위 : 건)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8	2	3	-	-	-	-	-	1	-	-	-	1	-	1	-	-
2004	17	4	3	-	1	1	-	1	2	-	-	1	1		1	1	1
2005	29	6	3	2	1	2	1	1	4	1	1	1	1	2	1	1	1
2006	27	5	3	2	1	1	1	1	4	1	1	1	1	2	1	1	1
2007 (6월말기준)	28	5	3	2	1	1	1	1	5	1	1	1	1	2	1	1	1

● ●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실적³⁵⁾ ● ●

(단위 :건)

연도	상 담 방 법				
	계(상담건수)	내방·방문	전화	사이버	기타
2003	22,257	16,590	5,045	267	355
2004	26,424	17,686	7,932	359	444
2005	42,044	23,020	16,922	998	1,104
2006	33,839	18,136	14,078	680	945

※ 2007년 6월말 실적은 취합 중에 있음.

□ 2006년도 성매매관련 상담소 상담건수 및 상담인원 실적을 살펴보면 상담 인원은 7,685명이며 상담내용은 탈성매매가 15,405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빗 문제가 10,862명으로 21.2%를 차지하고 있음.

3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3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실적」, 여성가족부, 2007, 7

• • 성매매관련 상담소 상담건수 및 상담인원³⁶⁾ • •

(단위 : 명, 건)

연도	상 담 내 용								
	인원	계	탈성매매	빛문제	구타/감금/ 성폭행	질병	가정/주 거문제	임신/ 미혼모	기타
2003	22,257	27,380 (100%)	8,955 (32.7%)	6,817 (24.9%)	813 (3.0%)	924 (3.4%)	784 (2.9%)	71 (0.3%)	9,016 (32.9%)
2004	19,783	32,382 (100%)	8,112 (25.1%)	7,144 (22.1%)	2,571 (7.9%)	2,169 (6.7%)	1,222 (3.8%)	559 (1.7%)	10,605 (32.7%)

연도	상 담 내 용									
	인원	계	탈성매매	빛문제	구타/감금/ 성폭행/위협	질병	인신 매매	임신/ 사회사선	진로	기타
2005	16,336	60,090 (100%)	15,008 (25%)	13,117 (21.8%)	5,109 (8.5%)	3,615 (6%)	570 (0.9%)	1,313 (2.2%)	2,754 (4.6%)	18,604 (31%)
2006	7,685	51,336 (100%)	15,405 (30%)	10,862 (21.2%)	5,546 (10.8%)	5,237 (10.2%)	731 (1.4%)	1,472 (2.9%)	3,475 (6.7%)	8,608 (16.8%)

□ 2006년도 성매매피해 상담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지원이 22,387건, 법률지원이 15,042건, 의료지원이 3,845건, 직업훈련알선 747건, 지원시설 608건, 현장구조 299건, 전문상담기관 343건임.

• •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 내용³⁷⁾ • •

(단위 : 명)

연도	계(건)	2차 상담권고	보호시설 등 안내	현장출동 협조요청	법률 지원	법률구 조신청	의료지원	취업알선 정보제공	기타
2003	28,489	12,321	652	306	2,615	56	1,409	3,212	7,918

3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관련 상담소 상담건수 및 상담인원」, 여성가족부, 2007, 7

3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자 지원내용」, 여성가족부, 2007, 7

연도	계(건)	심리, 정서 지원	관련기관연계			현장 구조	관련기관연계				기타
			보호 시설	의료 기관	직업훈련 알선		법률 상담	수사 의뢰	수사 동행	소송 지원	
2004	24,387	6,578	574	776	247	156	4,409	367	837	305	10,138

연도	계(건)	심리, 정서 지원	관련기관연계				현장 구조	의료 지원	법률 지원	기타
			지원 시설	전문 상담 기관	직업 훈련 알선	기타				
2005	57,690	24,344	726	364	739	261	497	2,423	16,594	11,742
2006	52,956	22,387	608	343	747	378	299	3,845	15,042	9,307

※ 심리·정서적 지원 : 상담의뢰인과의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공감하며 지지해준 경우 등

※ 기 타 : 생계비 수급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물품지원 등

□ 2006년도 성매매피해자 법률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42건으로 법률상담 9,351건, 수사동행 1,286건, 수사의뢰 611건, 소송지원 1428건, 기타 2,366건임.

● ●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현황³⁸⁾ ● ●

(단위 : 명)

시도명	연도	계	법률상담	수사의뢰	수사동행	소송지원	기타
합계	2004	5,918	4,409	367	837	305	-
	2005	16,594	10,878	826	1,385	2,336	1,169
	2006	15,042	9,351	611	1,286	1,428	2,366
서울	2004	2,212	1,514	97	452	149	-
	2005	5,054	4,162	78	419	353	42
	2006	5,506	3,015	32	255	188	2,016
부산	2004	2,384	1,995	136	206	47	-
	2005	2,296	1,296	55	167	417	361

38)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 여성 법률지원 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시도명	연도	계	법률상담	수사의뢰	수사동행	소송지원	기타
	2006	1,844	1,089	60	260	275	160
대구	2004	-	-	-	-	-	-
	2005	493	334	25	64	70	-
	2006	913	598	171	71	55	18
인천	2004	-	-	-	-	-	-
	2005	436	214	52	157	13	-
	2006	209	89	13	73	21	13
광주	2004	-	-	-	-	-	-
	2005	574	355	59	73	50	37
	2006	512	269	64	100	79	-
대전	2004	-	-	-	-	-	-
	2005	157	107	10	15	25	-
	2006	309	46	6	75	79	103
울산	2004	-	-	-	-	-	-
	2005	477	405	22	24	26	-
	2006	458	377	3	31	47	-
경기	2004	306	128	98	47	33	-
	2005	4,948	2,462	392	213	1,161	720
	2006	1,812	1,113	117	92	481	9
강원	2004	-	-	-	-	-	-
	2005	9	-	3	6	-	-
	2006	130	92	9	20	7	2
충북	2004	-	-	-	-	-	-
	2005	162	57	15	71	11	8
	2006	92	29	3	35	21	4
충남	2004	8	7	-	1	-	-
	2005	137	103	15	11	8	-

시도명	연도	계	법률상담	수사의뢰	수사동행	소송지원	기타
	2006	35	20	-	11	4	-
전북	2004	893	691	25	106	71	-
	2005	978	788	18	72	100	-
	2006	1,703	1,542	18	76	46	21
전남	2004	-	-	-	-	-	-
	2005	329	239	50	36	4	-
	2006	957	784	58	100	11	4
경북	2004	115	74	11	25	5	-
	2005	151	101	9	19	22	-
	2006	145	83	2	24	30	6
경남	2004	-	-	-	-	-	-
	2005	16	8	-	1	6	1
	2006	206	137	20	23	26	-
제주	2004	-	-	-	-	-	-
	2005	377	247	23	37	70	-
	2006	211	68	35	40	58	10

□ 2006년도 법률지원 실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소송이 199건, 형사소송이 232건임.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가 126건, 패소가 23건, 일부승소가 20건, 합의가 16건 기타가 14건임.

● ● 기소 현황³⁹⁾ ● ●

(단위 : 명)

시도명	합의	기소	불기소					소송결과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	죄안됨	공소권 없음	승소	패소	미결
계	87	160	127	17	9	18	6	143	6	628
서울	66	91	74	7	2	2	1	126	-	351
부산	2	34	16	1	2	14	5	4	-	130
인천	1	-	3	-	-	-	-	-	-	3
광주	-	-	-	2	-	-	-	-	-	-
울산	-	-	-	4	-	-	-	-	-	-
경기	3	10	3	0	1	-	-	9	2	42
전북	4	6	12	6	-	-	-	3	4	88
경북	9	16	15	1	4	2	-	1	-	10
제주	2	3	-	-	-	-	-	-	-	4

시도명	합의	고소 취하	불기소					기소			민사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	죄안됨	공소권 없음	승소	패소	미결	승소	패소	미결
계	57	23	111	26	18	4	7	189	47	502	88	12	381
서울	11	1	37	3	8	2	1	30	7	72	37	2	123
부산	9	7	13	1				38	8	362	15		157
대구	1	1	19	12				27	4	4	6		13
인천	1		3					2		3			4
광주	5	2	5	1				2	2	13	4		6
대전	1	1	5		2	1	1	3	1	2	2	1	1
울산	1		3	1				8		8	1		9
경기	2	1	10	2	1			51	15	30	11	2	61
강원	1	2											
충북	4		3	1				17	4				3
충남	4	2		5	3	1	2		1	2		1	
전북	2	1	5					9	4	2	6		
전남	8	4								2			2
경북	6	1	7		3		3	1		2	2	2	1
경남											3	4	1
제주	1		1					1	1		1		

39)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기소현황」, 여성가족부, 2007, 7

• • 민사소송 처리결과(2006)⁴⁰⁾ • •

(단위 : 명)

시도명	구분	계	처리결과				
			승소	패소	일부승소(패소)	합의	기타
총계	계	199	126	23	20	16	14
	소제기	136	86	13	12	15	10
	피소	63	40	10	8	1	4
전북	계	19	16	3		-	-
	소제기	17	16	1			
	피소	2		2			
충남	계	-					
	소제기	-					
	피소	-					
인천	계	3	2		1		
	소제기	-					
	피소	3	2		1		
제주	계	1	1				
	소제기	1	1				
	피소	-					
충북	계	4	4				
	소제기	3	3				
	피소	1	1				
울산	계	5	5				
	소제기	2	2				
	피소	3	3				
경남	계	9	1	2	-	-	6
	소제기	9	1	2			6
	피소	-					
경기	계	31	11	3	8	9	-
	소제기	25	9	2	5	9	-
	피소	6	2	1	3	-	-
경북	계	2	2	-	-	-	-

4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민사소송 처리결과」, 여성가족부, 2007, 7

시도명	구분	계	처리결과				
			승소	패소	일부승소(패소)	합의	기타
	소제기	-	-	-	-	-	-
	피소	2	2	-	-	-	-
시도명	구분	계	처리결과				
			승소	패소	일부승소(패소)	합의	기타
강원	계	-					
	소제기	-					
	피소	-					
대구	계	22	13	1	4	1	3
	소제기	13	8	-	4	1	-
	피소	9	5	1	-	-	3
광주	계	14	7	-	1	3	3
	소제기	7	3	-	-	2	2
	피소	7	4	-	1	1	1
부산	계	17	11	6			
	소제기	6	3	3			
	피소	11	8	3			
서울	계	65	48	6	6	3	2
	소제기	52	40	4	3	3	2
	피소	13	8	2	3	-	-
대전	계	7	5	2	-	-	-
	소제기	1		1			
	피소	6	5	1			

□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고발 232건으로 기소가 151건, 불기소가 81건을 차지하고 있음.

• • 형사소송 처리결과⁴¹⁾ • •

(단위 : 명)

시도 명	구분	계	처리결과											
			기소					불기소						
			소계	유죄	무죄	일부유죄	기타	소계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	죄안됨	공소권 없음	기타
총계	고소 고발	232	151	136	1	9	5	81	28	19	9	1	4	20
	피소	186	75	49	11	10	5	111	81	11	9	-	1	9
전북	고소 고발	17	11	11	-			6	1	-	5			-
	피소	5	1	1	-			4	3	1				
충남	고소 고발	-	-					-						
	피소	2	-					2		1				1
인천	고소 고발	3	3	3				-						
	피소	9	3		3			6			6			
제주	고소 고발	4	4	4				-						
	피소	1	-					1	1					
충북	고소 고발													
	피소	2	1	1				1	1					
울산	고소 고발	9	2	2				7	7					
	피소	10	2		1	1		8	8					
경남	고소 고발	6	-					6	3					3
	피소	-	-					-						
경기	고소 고발	32	31	28	0	3	0	1	1	-	-	-	-	-
	피소	26	8	5	0	0	3	18	13	3	-	-	-	2
경북	고소 고발	4	2	1		1		2		-	-			2
	피소	3	-					3		2	1			
강원	고소	6	5				5	1						1

4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형사소송 처리결과」, 여성가족부, 2007, 7

시도 명	구분	계	처리결과											
			기소					불기소						
			소계	유죄	무죄	일부유죄	기타	소계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	죄안됨	공소권 없음	기타
	고발													
	피소	2	1	1				1						1
전남	고소	19	6	6				13		13				
	고발													
	피소	3	-	-	-	-	-	3	2	1	-	-	-	-
대구	고소	26	18	17	-	1	-	8	2	-	-	-	-	6
	고발													
	피소	21	8	5	3	-	-	13	7	3	2	-	1	-
광주	고소	34	29	29	-	-	-	5	-	2	-	1	1	1
	고발													
	피소	15	1	1	-	-	-	14	10	-	-	-	-	4
부산	고소	11	7	7				4	1	3				
	고발													
	피소	11	7	5	1		1	4	4					
서울	계	114	69	53	4	11	1	45	38	1	1	-	2	3
	고소	46	27	23	1	3	-	19	13	1	1	-	2	2
	고발													
	피소	68	42	30	3	8	1	26	25	-	-	-	-	1
대전	고소	15	6	5		1		9			3		1	5
	고발													
	피소	8	1			1		7	7					

□ 성매매 피해여성 센터의 지원 상황을 정리해보면, 현재 탈성매매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지원되는 항목은 긴급 생계비 2006년 현재 매월 42만원, 의료지원비 300만원, 법률지원비 250만원, 직업교육비(월 35만원 * 6개월) 로 1인당 총 760만원까지 지원받고 있으며, 한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음.

□ 생계비와 지원비를 합산하면 6개월 동안 1인당 월 평균 169만원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치료기간이 길 경우에, 심신의 회

복과 자활 준비 기간이 1년이 넘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치료를 현실적으로 중단하거나 직업훈련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됨. 1년 기간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즉 치료기간이 길 경우에, 심신의 회복과 자활 준비의 기간이 1년이 넘을 수도 있음. 이 경우 치료를 현실적으로 중단하거나, 직업훈련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됨.

- 1인당 지원액 한도의 문제로는 의료비가 1인당 한도 760만원에 가까울 경우, 자활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직업훈련비의 경우 현 취업이 가능한 정도의 고급 훈련까지 이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원비가 더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학 진학자의 경우, 초기 등록금 지원의 필요하며 거주 및 쉼터나 주거비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임.

5. 성병검진대상자의 전염병 지역분포

-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전국의 유흥업소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유흥업소의 분포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집결지, 유흥주점, 다방, 불법안마시술소 종사자 등의 지역별 분포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병정기검진대상자의 지역별 등록현황은 각 지역의 집결지 및 유흥업소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음..
-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전체에 대한 지역별 분포의 변화추이를 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인 2003년에 비해 2007년6월 현재 전북(2.86%→4.5%), 대전(4.76%→7.4%)지역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경남(14.05%→12.4%), 울산(4.52%→3%)지역은 비율이 감소하였음.
- 전국 16개 시·도별 순위는 2003년 ①경남, ②경기, ③경북 순으로 높았으나, 2007년6월 ①경기, ②경남, ③대구 순으로 바뀌었음.

• •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지역별 인원 현황⁴²⁾ • •

(단위 : 명,%)

구 분		2003년
총 계		156,444 (100%)
1	경 남	21,973 (14.05%)
2	경 기	21,299 (13.61%)
3	경 북	13,881 (8.87%)
4	대 구	12,502 (7.99%)
5	서 울	10,969 (7.01%)
6	부 산	9,848 (6.29%)
7	충 남	9,569 (6.12%)
8	광 주	9,398 (6.01%)
9	대 전	7,440 (4.76%)
10	울 산	7,073 (4.52%)
11	전 남	6,315 (4.04%)
12	강 원	5,851 (3.74%)
13	인 천	5,676 (3.63%)
14	충 북	5,124 (3.28%)
15	제 주	5,051 (3.23%)
16	전 북	4,475 (2.86%)

구 분		2007년 6월
총 계		100,789(100%)
1	경 기	15,227(15.1%)
2	경 남	12,505(12.4%)
3	대 구	8,893(8.8%)
4	충 남	7,641(7.5%)
5	대 전	7,632(7.4%)
6	부 산	7,418(7.3%)
7	경 북	6,811(6.7%)
8	서 울	5,475(5.5%)
9	인 천	4,722(4.7%)
10	전 북	4,547(4.5%)
11	광 주	3,717(3.7%)
12	제 주	3,667(3.6%)
13	충 북	3,353(3.3%)
14	강 원	3,351(3.3%)
15	전 남	3,082(3.0%)
16	울 산	2,948(3.0%)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6. 안명옥 의원 재구성

□ 성병정기검진대상자를 업종별 변화도 눈에 띄는데, 타 업종에 비해 특수업태부(5,922명→1,709명)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특수업태부의 경우 서울(26%→57.8%)과 경기(8.6%→15.6%)지역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대구와 인천, 광주와 울산 지역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순위는 2003년 ①서울, ②경북, ③인천 순으로 높았으나, 2007년6월 ①서울, ②경기, ③부산 순으로 바뀌었음.

4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별정기검진대상자 지역별 인원 현황」, 질병관리본부, 2007, 7

□ 유흥접객원의 경우 전북(2.6%→4.5%) 지역의 분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원도 3,137명에서 3,856명으로 719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시·도별 순위는 2003년 ①경남, ②경기, ③대구 순으로 높았으나, 2007년6월 ①경기, ②경남, ③대구 순으로 바뀌었음.

● ● 특수업태부 지역별 순위⁴³⁾ ● ●

(단위 : 명,%)

구 분	2007년6월	2003년
총 계	1,709(100%)	5,922(100%)
1 서울	988(57.8%)	1,542(26%)
2 경기	268(15.7%)	509(8.6%)
3 부산	144(8.4%)	657(11.1%)
4 경남	93(5.4%)	610(10.3%)
5 경북	92(5.4%)	841(14.2%)
6 전북	72(4.2%)	211(3.6%)
7 제주	22(1.3%)	91(1.5%)
8 강원	22(1.3%)	244(4.1%)
9 대전	8(0.4%)	47(0.8%)
10 대구	-	379(6.4%)
11 전남	-	30(0.5%)
12 인천	-	748(12.6%)
13 광주	-	-
14 울산	-	13(0.2%)
15 충북	-	-
16 충남	-	-

● ● 유흥접객원 지역별 순위⁴⁴⁾ ● ●

(단위 : 명,%)

구 분	2007년6월	2003년
총 계	85204(100%)	122,308(100%)
1 경기	12,922(15.2%)	18,207(14.7%)
2 경남	10,895(12.8%)	18,107(14.8%)
3 대구	8,097(9.5%)	9,891(8.1%)
4 대전	7,240(8.5%)	7,105(5.8%)
5 부산	7,079(8.3%)	8,767(7.2%)
6 충남	6,441(7.65%)	6,703(5.5%)
7 서울	4,130(4.8%)	8,387(6.9%)
8 인천	4,055(4.76%)	4,161(3.4%)
9 경북	3,858(4.53%)	7,622(6.2%)
10 전북	3,856(4.5%)	3,137(2.6%)
11 광주	3,272(3.8%)	8,392(6.9%)
12 제주	3,120(3.7%)	4,690(3.8%)
13 강원	2,775(3.3%)	4,285(3.5%)
14 울산	2,658(3.1%)	6,004(4.9%)
15 충북	2,546(3%)	3,372(2.8%)
16 전남	2,260(2.6%)	3,658(3.0%)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6. 안명옥 의원 재구성

4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특수업태부 지역별 순위」, 질병관리본부, 2007, 7

4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유흥접객원 지역별 순위」, 질병관리본부, 2007, 7

□ 다방여종업원은 제주지역의 증가(1%→4%)와 대구지역의 감소(8%→5.3%)가 눈에 띄었으며. 시·도별 순위는 2003년 ①경북, ②경남, ③충남 순에서 2007년6월 ①경북, ②경기, ③경남 순으로 바뀌었음.

□ 불법안마시술소 종사자의 경우 서울(37.3%→28.7%)의 전국대비 비율이 급감하였으며, 대전(3.1%→12.5%), 경기(19.9%→23.6%) 지역이 급증하였음.

□ 시·도별 순위는 2003년 ①서울, ②경기, ③충북 순에서, 2007년6월 ①서울, ②경기, ③대전 순으로 바뀌었음.

• • 다방여종업원 지역별 순위⁴⁵⁾ • •

(단위 : 명,%)

구 분	2007년6월	2003년
총 계	897(100)	26,298(100%)
1	경북	2,861(22%)
2	경기	1,825(14%)
3	경남	1,467(11.3%)
4	충남	1,174(9%)
5	전남	796(6.1%)
6	충북	795(6.1%)
7	대구	685(5.3%)
8	인천	647(5%)
9	전북	591(4.6%)
10	강원	545(4.2%)
11	제주	525(4%)
12	광주	423(3.3%)
13	울산	290(2.2%)
14	부산	185(1.4%)
15	서울	99(1%)
16	대전	71(0.5%)

• • 안마시술소종업원 지역별 순위⁴⁶⁾ • •

(단위 : 명,%)

구 분	2007년6월	2003년
총 계	897(100%)	1,916(100%)
1	서울	258(28.3%)
2	경기	212(23.6)
3	대전	113(12.6%)
4	대구	111(12.4%)
5	경남	50(5.6%)
6	전북	28(3.1%)
7	전남	26(2.9%)
8	충남	26(2.9%)
9	광주	22(2.5%)
10	인천	20(2.2%)
11	충북	12(1.4%)
12	부산	10(1.1%)
13	강원	9(1%)
14	경북	-
15	제주	-
16	울산	-

4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다방 여종업원 지역별 순위」, 질병관리본부, 2007, 7

4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안마시술소 지역별 순위」, 질병관리본부, 2007, 7

6. 성매매피해여성 성병실태

- 경찰청 ‘117 긴급지원센터로’ 신고하였던 성매매피해여성 105명을 대상으로 현재 질병상태를 조사한 바 성병은 물론 질염, 자궁경부암, 골반염, 등 부인과 질환을 평균 1~3가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참여정부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의 성병 감염 현황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매독은 2003년도 1,611건(3.6%)에서 2006년도 1,658건(9.5%)으로 5.9% 증가하였음.
-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의 성병 감염 현황을 보면 2003년 ①경기, ②대구, ③서울, ④전남, ⑤부산지역에서 2007년 6월 현재 ①경기, ②서울, ③대구, ④경남, ⑤대구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음.

• •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의 성병 감염 현황⁴⁷⁾ • •

○ 2003년도

(단위 : 건)

시·도	계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기타
계	44,261	1,611	8,349	45	25,741	6,912	1,603
서울	5,615	146	482	1	3,838	931	217
부산	3,210	112	734	0	2,253	102	9
대구	7,273	115	661	0	5,731	174	592
인천	2,913	73	118	0	1,775	932	15
광주	253	57	145	0	51	0	0
대전	2,259	43	279	0	1,358	524	55
울산	1,048	26	37	0	869	111	5

4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병건강진단대상자 성병감염 현황」, 질병관리본부, 2007, 7

시·도	계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기타
경기	9,155	568	2,079	0	4,298	2,036	174
강원	1,925	32	638	0	595	649	11
충북	672	28	193	0	135	315	1
충남	253	55	21	0	138	18	21
전북	557	31	101	0	123	248	54
전남	3,543	107	1,613	7	1,569	98	149
경북	2,351	78	592	37	1,364	217	63
경남	2,550	98	473	0	1,223	557	199
제주	684	42	183	0	421	0	38

○ 2004년도

시·도	계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기타
계	39,096	1,925	5,055	10	22,581	8,422	1,103
서울	4,209	58	190	2	2,816	1,017	126
부산	2,984	98	387	0	2,143	351	5
대구	5,502	87	404	0	4,802	101	108
인천	2,548	82	64	0	1,515	850	37
광주	129	44	48	0	37	0	0
대전	1,386	82	228	0	793	238	45
울산	1,080	36	21	0	858	165	0
경기	10,438	822	1,095	0	5,079	3,282	160
강원	1,722	40	378	0	483	805	16
충북	477	36	89	0	76	274	2
충남	277	67	3	0	117	90	0
전북	455	34	118	0	99	134	70
전남	2,823	142	1,169	8	923	341	240
경북	2,029	108	351	0	1,259	243	68
경남	2,483	129	431	0	1,214	528	181
제주	554	60	79	0	367	3	45

○ 2005년도

시·도	계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기타
계	23,009	1,398	2,209	10	12,385	6,179	828
서울	2,465	88	180	0	1,440	596	161
부산	1,445	73	104	0	994	273	1
대구	3,432	49	114	0	3,014	157	98
인천	1,027	49	37	0	565	314	62
광주	127	63	32	0	32	0	0
대전	1,055	66	95	0	616	248	30
울산	531	20	8	0	264	239	0
경기	6,062	410	479	0	2,796	2,343	34
강원	1,197	46	178	0	286	682	5
충북	653	37	73	0	57	486	0
충남	337	57	1	0	177	102	0
전북	313	36	34	2	64	82	95
전남	1,203	133	362	7	496	110	95
경북	1,495	110	273	0	798	255	59
경남	1,393	102	203	1	611	292	184
제주	274	59	36	0	175	0	4

○ 2006년도

시·도	계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기타
계	17,357	1,658	1,362	6	8,536	4,968	827
서울	1,606	42	96	0	1,012	393	63
부산	1,149	55	54	0	735	302	3
대구	2,293	67	46	0	2,055	67	58
인천	883	71	40	0	339	356	77
광주	145	99	34	0	12	0	0
대전	990	67	58	0	628	215	22
울산	307	20	10	0	7	270	0
경기	4,313	433	209	0	1,435	1,982	254

강원	996	41	127	0	309	519	0
충북	389	42	70	0	53	223	1
충남	527	114	10	0	322	81	0
전북	283	53	48	0	34	144	4
전남	773	183	204	4	226	43	113
경북	1,435	132	92	0	912	199	100
경남	918	184	161	2	265	174	132
제주	350	55	103	0	192	0	0

○ 2007년 6월 말

시·도	계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기타
계	8,047	842	678	4	3,180	2,711	632
서울	1,417	119	258	0	678	345	17
부산	428	23	19	0	231	155	0
대구	902	31	22	0	762	75	12
인천	495	28	11	0	216	218	22
광주	69	54	6	0	9	0	0
대전	263	39	23	0	86	104	11
울산	135	5	2	0	2	126	0
경기	1,822	144	52	0	278	940	408
강원	432	13	61	3	177	178	0
충북	186	11	43	0	25	107	0
충남	210	49	2	0	123	36	0
전북	160	35	13	0	9	103	0
전남	257	62	33	1	53	29	79
경북	498	68	30	0	315	53	32
경남	607	119	87	0	113	242	46
제주	166	42	16	0	103	0	5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성병 표본감시 현황은 2001년부터 300여개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과 전국보건소로부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받고 있음.

□ 연도별, 질병별 성병 현황을 보면 07년 6월 현재 6,455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2006년 매독은 1,179건으로 전년대비 74.9% 증가하였음. 본 통계는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의 성병감염 현황’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 성매매 방지 및 예방과 더불어 성병 위생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함.

□ 이 외에도 ‘성기단순포진’이 1,481건으로 65.8%, ‘침균 콘딜롬’이 693건으로 39.4% 증가하였음.

● ● 연도별, 질병별 성병 현황⁴⁸⁾ ● ●

(단위 : 건)

군	질병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6월
제3군	매독	252	134	582	807	674	1,179	759
	임질	18,392	21,476	15,290	10,845	6,135	4,219	1,656
	클라미디아	354	2,060	4,048	5,970	4,245	2,978	1,698
	성기단순포진	629	717	670	658	893	1,494	847
	연성하감	5	1	1	0	0	0	0
	침균콘딜롬	281	326	388	382	497	696	459
	비임균성요도염	8,002	8,155	6,026	4,977	3,500	2,748	1,036
	계	27,915	32,869	27,005	23,639	15,944	13,314	6,455

*비임균성 요도염은 남자에 한해 보건소에서만 보고함

*위 자료는 신고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로서 전체 성병 환자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성별, 질환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6월 현재 총 128명으로 남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성병은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남자전체의 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클라미디아로 여성전체의 62.2%를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25세부터 29세가 1,447건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 별로 보면 2006년도 50세~59세의 경우 매독이 185건으로 전년대비 83.1%(101건) 증가함.

48)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도별 질병별 성병현황」, 질병관리본부, 2007, 7

● ● 질환별, 성별, 연령별 성병현황⁴⁹⁾ ● ●

(단위 : 건)

구분	연령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 단순포진		연성하감		침균 콘딜롬		비임균성 요도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1 년	계	118	134	14,254	4,138	31	323	396	233	5	0	187	94	8,002	-
	0-9	0	0	0	0	0	0	0	0	0	0	1	1	0	-
	10-19	0	2	1,064	327	4	24	6	5	1	0	3	7	480	-
	20-29	18	37	7,640	2,897	14	216	82	58	2	0	82	46	3,933	-
	30-39	27	33	4,166	660	8	54	146	60	1	0	70	25	2,603	-
	40-49	24	33	1,124	196	5	24	92	53	0	0	23	10	715	-
	50-59	30	21	178	27	0	3	23	33	1	0	6	4	180	-
	60이상	19	8	82	31	0	2	47	24	0	0	2	1	91	-
2002 년	계	81	53	15,529	5,950	32	2,028	458	259	1	0	233	93	8,155	-
	0-9	0	0	0	0	0	0	0	1	0	0	0	0	0	-
	10-19	1	3	1,156	512	3	169	5	6	0	0	3	6	419	-
	20-29	23	19	8,059	4,256	17	1,398	132	84	1	0	91	52	3,967	-
	30-39	17	17	4,647	881	7	345	171	76	0	0	100	15	2,694	-
	40-49	15	7	1,337	240	5	106	87	49	0	0	26	9	776	-
	50-59	11	2	246	43	0	10	35	28	0	0	9	5	183	-
	60이상	14	5	84	18	0	0	28	15	0	0	4	6	116	-
2003 년	계	325	257	10,162	5,128	37	4,011	492	178	0	1	279	109	6,026	-
	0-9	0	0	0	0	0	0	0	0	0	0	0	0	0	-
	10-19	3	0	840	296	3	228	5	6	0	0	8	11	349	-
	20-29	44	75	4,757	3,853	18	2,988	140	65	0	0	115	59	2,722	-
	30-39	78	50	3,116	737	5	617	181	26	0	0	108	26	1,962	-
	40-49	63	52	1,136	216	7	172	91	42	0	1	28	9	720	-
	50-59	48	38	246	21	1	5	41	22	0	0	10	3	180	-
	60이상	89	42	67	5	3	1	34	17	0	0	10	1	93	-
2004 년	계	410	397	7,066	3,779	86	5,884	520	138	0	0	310	72	4,977	-
	0-9	0	0	0	0	0	0	0	0	0	0	0	0	0	-
	10-19	18	18	546	124	2	208	7	0	0	0	12	4	305	-
	20-29	92	133	3,124	2,709	48	4,223	124	42	0	0	131	45	2,064	-
	30-39	113	82	2,220	721	21	1,062	147	22	0	0	107	12	1,600	-
	40-49	98	102	862	192	13	372	125	31	0	0	40	4	675	-
	50-59	89	62	224	20	1	19	47	27	0	0	9	4	184	-
	60이상	0	0	90	13	1	0	70	16	0	0	11	3	149	-
2005	계	293	381	4,403	1,732	43	4,202	749	144	0	0	383	114	3,500	-

49)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도별, 성별, 연령별, 성병현황」, 질병관리본부, 2007, 7

구분	연령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 단순포진		연성하감		침균 콘딜롬		비임균성 요도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9	0	0	0	0	0	0	0	0	0	0	0	0	0	-
	10-19	5	20	295	104	0	185	13	5	0	0	7	4	183	-
	20-29	78	152	1,958	1,094	23	2,724	129	16	0	0	147	60	1,295	-
	30-39	79	74	1,396	397	11	948	232	31	0	0	150	28	1,226	-
	40-49	83	82	563	116	6	328	200	32	0	0	48	11	538	-
	50-59	48	53	146	16	1	16	106	39	0	0	19	6	155	-
	60이상	0	0	45	5	2	1	69	21	0	0	12	5	103	-
2006	계	454	618	3,401	733	57	2,856	1,223	258	0	0	557	136	2,734	-
	0-9	0	0	0	0	0	0	1	0	0	0	5	8	0	-
	10-19	15	46	241	32	0	116	7	4	0	0	11	9	126	-
	20-29	120	248	1,453	424	24	1,743	234	48	0	0	196	60	1,013	-
	30-39	106	119	1,072	182	18	699	376	52	0	0	200	27	941	-
	40-49	111	120	451	77	10	275	315	50	0	0	94	18	414	-
	50-59	100	85	135	14	5	21	192	54	0	0	30	6	143	-
	60이상	2	0	49	4	0	2	98	50	0	0	21	8	97	-

2007년도 6월

구분	계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비임균성 요도염		성기 단순포진		침균 콘딜롬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4	4	2	2	1	1	0	0	0	0	0	-	0	1	1	0
5-9	1	0	1	0	0	0	0	0	0	0	-	0	0	0	1
10-14	3	2	1	0	0	1	0	0	0	1	-	0	0	0	1
15-19	308	198	110	4	21	115	19	1	63	66	-	7	2	5	5
20-24	1,096	482	614	28	97	243	69	8	424	132	-	36	9	35	15
25-29	1,447	777	670	27	70	336	76	12	492	219	-	89	16	94	16
30-34	983	625	358	36	47	213	44	14	243	183	-	100	16	79	8
35-39	856	587	269	26	32	203	25	11	186	173	-	110	17	64	9
40-44	626	405	221	39	38	97	25	5	139	103	-	121	10	40	9
45-49	472	298	174	30	45	96	16	1	74	60	-	85	29	26	10
50-54	297	196	101	45	45	36	4	1	19	34	-	71	26	9	7
55-59	152	102	50	38	22	13	4	0	2	26	-	18	18	7	4
60-64	82	57	25	13	9	9	0	1	0	17	-	15	12	2	4
≥65	128	84	44	29	16	11	1	0	2	22	-	17	22	5	3
계	6,455	3,815	2,640	316	443	1,373	283	54	1,644	1,036	-	669	178	367	92

7. 성매매여성 지원시설 관리·감독 실적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관리감독 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면, 지자체별 시설 및 상담소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했으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시설 및 상담소 현장점검을 실시함.
 - '05년 : 1회, 14개소 대상(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6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8개소)
 - '06년 : 2회, 25개소 대상(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9개소, 자활지원센터 2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6개소,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8개소)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실적보고 시 통계 산출의 정확성, 회계 집행의 적정성, 종사자 등 시설 운영 일반현황 사항, 시설 및 상담소의 환경 및 안전실태 등임.
- 점검 결과 업무 미숙 및 사업 운영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시설 운영 및 회계 관련 지침 위반 사항이 2005년 총 14개소 점검, 총 74건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였음.

•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관리감독 실적⁵⁰⁾ • •

시도명 (점검대상)	점검 결과
서울 (3개소)	- 지적 사항 : 총 19건 • 상담건수 관련 통계 오류 산출: 4건 • 종사자 채용 및 교육관련 미비사항 : 4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11건

5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관리감독 실적」, 여성가족부, 2007, 7

시도명 (점검대상)	점검 결과
경기 (3개소)	- 지적사항 : 총 17건 · 상담건수 관련 통계 누락: 1건 · 종사자 채용 및 교육관련 미비사항 : 6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10건
부산 (1개소)	- 지적사항 : 총 8건 · 종사자 채용 및 교육관련 미비사항 : 2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6건
대구 (1개소)	- 지적사항 : 총 8건 · 종사자 교육관련 미비사항 : 1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7건
경남 (1개소)	- 지적사항 : 총 7건 · 종사자 교육관련 미비사항 : 1건 · 회계 미분리 운영 및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6건
전남 (2개소)	- 지적사항 : 총 2건 · 상담건수 관련 통계 오류 과다 산출: 2건
광주 (1개소)	- 지적사항 : 총 5건 · 종사자 교육관련 미비사항 : 1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 3건 · 진정함이 아닌 건의함 설치 : 1건
전북 (1개소)	- 지적사항 : 총 2건 · 종사자 교육관련 미비사항 : 1건 · 사업비 항목별 미분리 : 1건
대전 (1개소)	- 지적사항 : 총 6건 · 종사자 채용 및 교육관련 미비사항 : 2건 · 회계 미분리 및 절차 미준수: 4건

□ 2006년도에는 총 25개소를 점검하여 총 104건을 지적 및 시정 조치함.

●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관리감독 실적⁵¹⁾ ● ●

시도명 (점검대상)	점검 결과
서울 (4개소)	- 지적사항 : 총 17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7건 · 프로그램 운영일지 관리 미흡 등 사업 운영 미비사항 : 9건 · 종사자 근태 관리 미흡 : 1건
경기 (4개소)	- 지적사항 : 총 27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9건

5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관리감독 실적」, 여성가족부, 2007, 7

시도명 (점검대상)	점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 사업 운영 미비사항 : 14건 ·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미비 : 2건 · 시설 환경 및 안전실태 관리 미비 : 1건 · 운영 관련 서류 미구비 : 1건

□ 시정 조치로는 현장 점검 결과 미비사항을 관할 지자체 및 시설에 통보 및 시정·지시하였으며 미비사항에 대한 공동보완지침(회계 관리 지침 포함)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송부하였음. 또한 지자체 별로 시설과 상담소에 대한 점검 및 미비사항에 대한 지도·요청하여 시설 및 상담소 관계자 교육 정례화하였고,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교과과정에 회계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주관하에 시설 종사자 대상 행정 실무 및 회계 교육 연 1회 실시하였음.

•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관리감독 실적⁵²⁾ • •

부산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 총 19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 9건 ·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 사업 운영 미비사항 : 1건 · 종사자 채용 및 근무상황부 등 인력 관리 미흡 : 6건 · 시설 환경 및 안전실태 관리 미비 : 3건
대구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 총 11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 7건 ·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운영 일지 관리 미흡 등 사업 운영 미비사항 : 4건
인천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 총 22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 13건 · 프로그램 계획 미수립, 사업 부진 등 사업 운영 미비사항 : 8건 · 종사자 근무상황부 등 인력 관리 미흡 : 1건
광주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 총 1건 · 종사자 경력 증명 미구비 : 1건
울산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 총 8건 ·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및 절차 미준수 등 : 7건 · 사업 운영 대장 미비치 : 1건
전남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 총 2건 · 회계 운영 미분리 및 회계 관련 항목의 오지출 등 :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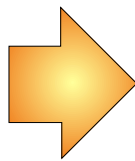
5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관리감독 실적」, 여성가족부, 2007, 7

8. 해외 결혼·성매매 문제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행위에 대한 국내의 단속이 강화되자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성매매 여성이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해외 관광객으로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 남성들에 대한 보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해외 성매매방지를 위해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성매매자의 여권효력을 상실시키는 등 해외로의 성매매 목적 출국을 막고자 했음.

현 행

- 알선브로커 및 성매매자에 대한 관리 부족
-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는
 - 여권의 발급이 제한(1~3년)되나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여권법 제8조)됨
 - 여권반납(법11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 선

- 검·경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 구성·운영추진
 - 출·입국 및 해외범죄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리, 송출 알선 조직 모니터링 실시, 해외 수사공조체제 구축
- 성매매관련 범죄자를 여권의 발급제한에 포함하고, 여권의 반납사항에도 포함하여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여권법 관련규정 개정방안을 검토
 - ※ 여권법제11조(반납)에 제8조제3항 2호 규정(국위손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명시

□ 2007년 6월 12일 미 국무부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TVP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미 국무부는 매년 6월 보고서를 작성·배포하고 있음.

□ 인신매매보고서는 현대판 노예제도(인신매매·성매매)의 종식을 위해 전세계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세계 국가들을 4등급으로 분류함

-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상을 이룩한 국가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여 1등급(Tier 1)
- 최소기준은 맞추지 못하지만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경우는 2등급이며, 2등급 국가중 3등급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주의해야 할 2등급(Tier 2 Watch)으로 분류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매매와 성착취 행위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인신매매 제거를 위한 기준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한해 동안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음.

□ 처벌분야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처벌에 한국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며, 2006년 190건을 조사하여 이중 36개의 사건을 기소하였으며 한국 경찰은 성매매와 관련된 조직범죄에 대한 협력조사를 증대하기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함.

- 보호분야로는 피해자보호와 관련해서 한국정부는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하였으며, 19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쉼터(47개소)·상담소(27개소)·그룹홈(5개소)운영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시설에도 지원과 24시간 hotline운영 2006년 4월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알선브로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국내 외국인 신부의 욕구를 다루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함.
- 한국정부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안도 제공하고 있음.
- 예방분야로는 한국정부는 성매매방지홍보확대를 통하여 반 인신매매 예방노력을 꾸준히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존스쿨 확대를 통해 성구매자의 재범방지 추진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세미나 개최 및 홍보 포스터 부착 등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4개부처가 참여하는 인신매매 방지회의가 열리고 있음.
-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성매매 보고서 일부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음.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7)

REPUBLIC OF KOREA (Ti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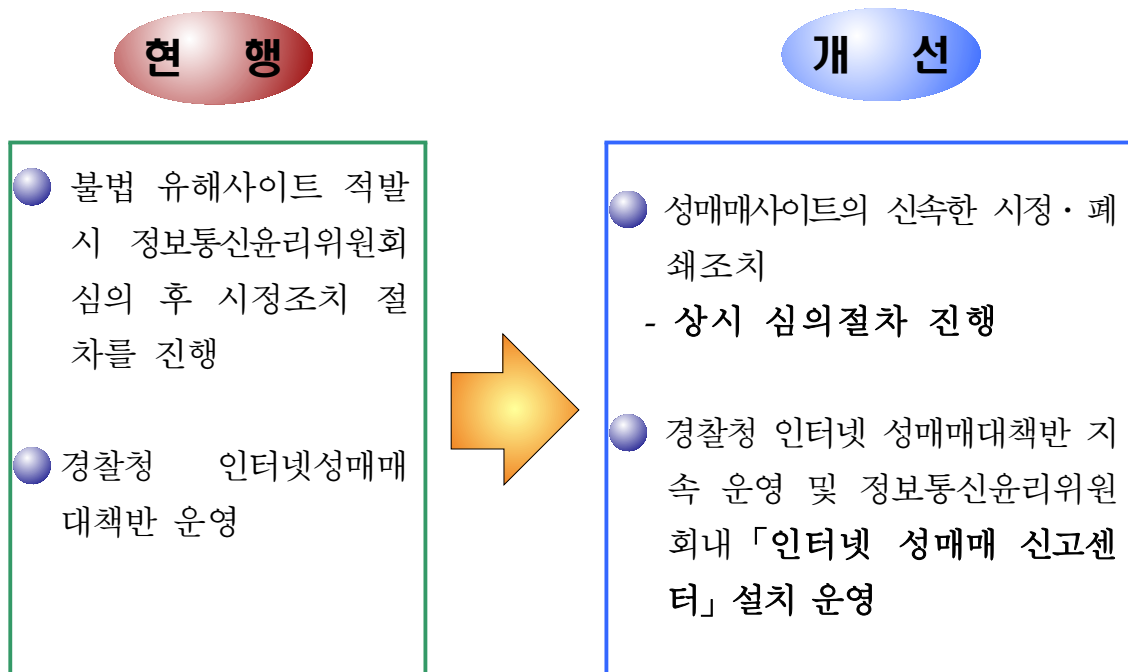
- The Republic of Korea (R.O.K.) is primarily a source country for the trafficking of women and girls internally and to the United States (often through Canada and Mexico), Japan, Hong Kong, Guam,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and Western Europe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Women from Russia, Uzbekistan, Kazakhst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trafficked for sexual exploitation to South Korea. A growing number of these foreign victims were trafficked to the R.O.K. for sexual or labor exploitation through brokered international marriages to South Korean men. South Korean men are a significant source of demand for child sex tourism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대한민국은 본래 자국에서나 해외로의 (캐나다나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오거나, 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서부 유럽으로 상업적 성 착취의 목적으로) 여성과 미성년 소녀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근원 국가이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필리핀, 태국,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성 착취를 위해 남한으로 매매되어온다. 이러한 외국인 희생자들의 증가 숫자는 남한 남자와 결혼을 주선하는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성 혹은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한국에 매매되어 왔었다. 남한 남성들은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군도에서 아동 성 여행 수요의 막대한 근원이다.>

- 국내 성매매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 남성의 성매매 관광, 러시아, 중국, 필리핀,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 여성들이 국제결혼 알선 등을 통해 한국으로 인신매매 되고 있으며 한국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캐나다, 및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 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음.

9. 인터넷을 통한 변종 성매매 실태

-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이 쉬운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인터넷 성매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 2007년 6월 현재 접수된 신고건수는 7,533건으로 이는 전년도 2,680건에 비해 2.8배 증가한 수치임.

• •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⁵³⁾ • •

(단위: 건)

구 분	인터넷(불건전만남 유도)
2005	1,511
2006	2,680
2007.6월	7,533
총계	11,724

□ 최근 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불건전만남 사이트’는 온라인 게시판 혹은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6월 현재 <인터넷 변종 성매매 심의 실적>을 보면 총 6,126건의 심의건수 중 시정요구는 2,702건, 청유정(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은 35건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시정요구는 전년대비 약 9.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음.

• • 불건전만남 유도한 인터넷 심의실적⁵⁴⁾ • •

(단위: 건)

구 분	인터넷			전화			계		
	심의	시정 요구	청유정 결정	심의	시정 요구	청유정 결정	심의	시정 요구	청유정 결정
2004	495	187	44	2,061	662	-	2,556	849	44
2005	1,087	118	63	255	44	-	1,342	162	63
2006	2,887	271	23	281	105	-	3,168	376	23
2007.6월	5,890	2,573	35	236	129	-	6,126	2,702	35
총계	10,359	3,149	165	2,833	940	0	13,192	4,089	165

5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 2007년 7월

5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불건전만남 유도한 인터넷 심의실적」, 2007년 8월

- 또한 <음란 및 불건전 만남 유도 모바일 심의실적>을 보면 ‘음란정보 관련 된 심의실적’은 2004년도 3,211건에서 2006년도 27,972건, 2007년 6월 6,99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불건전만남 유도모바일’은 2004년 1,148건에서 2006년 579건, 2007년 6월 23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 음란 및 불건전만남 유도모바일 심의실적⁵⁵⁾ • •

(단위: 건)

구 분	음란정보(전체)			불건전만남 유도(채팅 및 미팅)		
	심의	시정요구	청유정결정	심의	시정요구	청유정결정
2004	3,211	550	2,087	1,148	516	-
2005	9,047	2,772	5,308	710	686	-
2006	27,972	1,380	17,711 ¹⁾	905	579	-
2007.6월	6,992	416	4,575	265	231	-
총계	47,222	5,118	29,681	3,028	2,012	0

※ 1) 청소년유해정보확인 17,578건 포함

2) '06년말 이통사들 성인콘텐츠 서비스 중단으로 '07년부터 모바일 심의실적 감소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제공되는 성매매관련 사이트⁵⁶⁾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해외 사이트는 동일사이트를 다수의 도메인을 갖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 성매매의 또 다른 창구인 역할대행사 사이트는 자신을 주목시키기 위해 ‘시급’과 ‘일당’을 정확하게 밝히고 자신의 성적 성향, 사진 등도 올려놓음으로써 상대를 유혹하고 있으며, 특히 여대생들은 이곳을 통해서 쉽고 편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5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음란 및 불건정만남 유도모바일 심의실적」, 2007년 8월

5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불건전만남유도 관련 사이트 사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8

[주간현대] 2007년8월19일

□ 취재진은 역할대행 구매자를 가장해 한 여성에게 접근, 메신저를 통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정도 지났다는 그녀는 가히 살인적인 구직난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는 구직을 완전히 포기했으며 역할대행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 하루정도 애인대행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주어야 하나?

- 아침 10시에 만나서 저녁 7시까지 20만원 정도다. 물론 밥값이나 술값은 상대 남성이 내야 한다.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 그 이후의 시간이라면 뭘 의미하는가?

- 그냥 늦은 밤까지 같이 있는 걸 말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 같이 잘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가?

- 그런건 만나서 이야기 하자.

☞ 가능하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 가능하다. 하지만 20만원 정도 더 받는다.

☞ 한달에 이렇게 해서 몇 번 정도 남자를 만나나?

- 운 좋으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만난다. 그 중에서 잠자리까지 원하는 남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솔직히 남자들이 그냥 하루 돈 주고 밥먹고 이야기만 하려고 만나겠는가

- 사실 말이 역할대행이지 이런곳에서 하객 대행이나 일반 도우미 대행을 구하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다. 그냥 명분일뿐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객대행의 경우 대부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서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

☞ 현재 한달에 버는 돈은 얼마인가?

- 적으면 200만원에서 많으면 400만원까지 벌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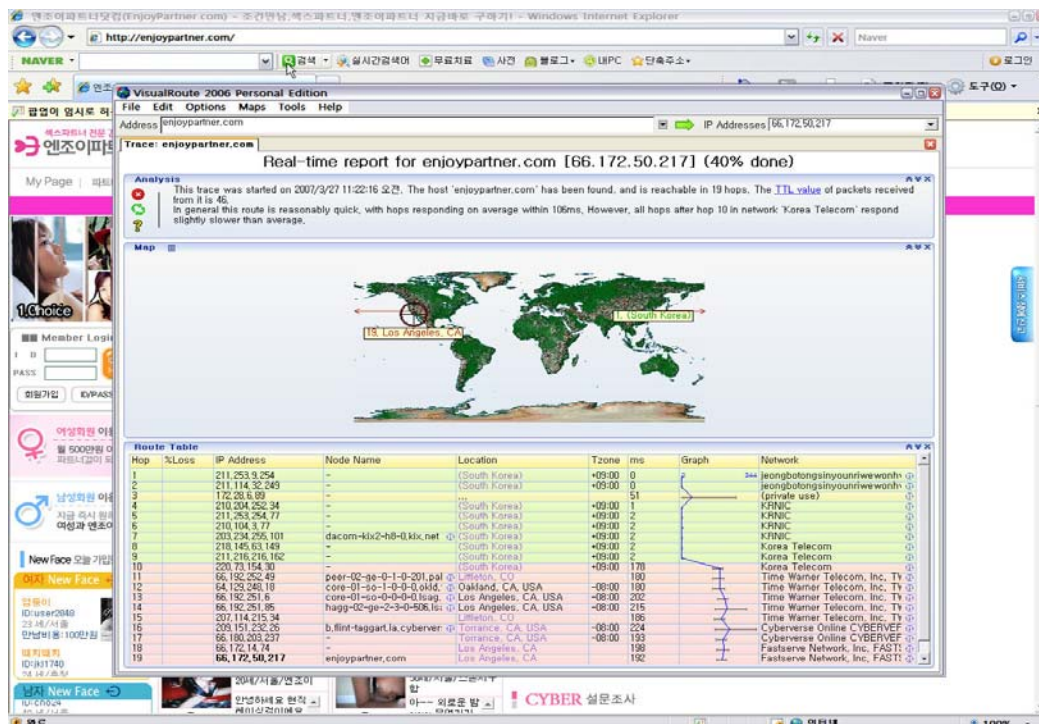
☞ 앞으로 이일을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

- 기왕에 취업은 포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할 생각이다. 돈이 많이 모은 후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때 가게라도 하나 하려고 한다.

● ● 해외 한글제공 불건전만남유도 사이트 ● ●

'07.7월 현재

연번	사이트	도메인 주소	서버위치
1	핫짬	www.hot-zim.com	미국
		www.hotzim.com	
		www.hotzzim.com	
		www.jogun.net	
		www.hot-zzim.com	
		www.gdaum.net	
		www.dangirl.net	
		www.camzzim.com	
		www.sexokok.com	
		www.jogungirl.com	
2	엔조이 파트너	www.enjoypartnerok.com	
		www.enjoypartner.com	
		www.sexpartnerok.com	
		www.enjoypartner.net	
		www.enjoypartner2.com	
		www.enjoypartner.org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도박, 음란 해외 사이트 차단요청 실적을 보면 2004년 406건에서 2005년 407건, 2006년 551건, 2007년 상반기 동안 933건에 해당함.

● ● 도박, 음란 관련 사이트 접수 및 심의실적 ● ●

(단위 : 건)

구 분		도 박	음 란	합 계
2004년	심 의	171	56,334	56,505
	시정요구(국내)	6	27,603	27,609
	차단요청(해외)	96	310	406
2005년	심 의	1,070	86,191	87,261
	시정요구(국내)	224	29,898	30,122
	차단요청(해외)	170	237	407
2006년	심 의	7,948	93,546	101,494
	시정요구(국내)	4,242	21,974	26,216
	차단요청(해외)	342	209	551
2007.6월	심 의	7,107	38,313	45,420
	시정요구(국내)	3,529	14,863	18,392
	차단요청(해외)	691	242	933

- 주) 1. 심의는 사이트 또는 게시물 단위로 이루어짐.
 2. 시정요구(국내)에는 광고성 단순 게시글도 포함됨.
 3. 차단요청(해외)은 누계의 개념이 아닌 해당연도 또는 월별 차단사이트 수를 의미함.

10. 청소년 성매매 89.2% 인터넷 사용

-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89.2%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을 보면, 2003년도 1,349건에서 2007년도 6월 현재 353건으로 해마다 감소추세 있으나 구속조치율은 2003년 27.5%에서 2007년 6월 4.8%로 감소하고 있음.

● ●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⁵⁷⁾ ● ●

(단위 : 건)

연 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검거대상별		
			구속	불구속	행위자	업주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2003	1,349	2,099	579	1,520	1,703	359	37
2004	1,593	2,680	712	1,968	2,202	425	53
2005	1,139	1,946	295	1,651	1,611	305	30
2006	744	1,745	149	1,596	1,502	183	60
2007.6	377	1,173	63	1,110	829	123	221

- 2007년도 6월 현재 성매매 범죄를 범하는 이용수단을 보면, 인터넷이 331건으로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11건, 전화방 5건을 차지하고 있음.

5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청소년성매매 단속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8월

• • 이용수단⁵⁸⁾ • •

(단위 : 건)

연 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2003	1,349	1,120	18	47	72	92
2004	1,593	1,368	21	7	88	109
2005	1,139	924	23	7	62	123
2006	744	590	1	5	50	98
2007.6	377	331	5	11	0	30

- 2007년도 6월 현재 피의자는 총 802명으로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가 325명, 20대가 316명으로 전체의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은 2006년도 15명으로 전년대비 5배 증가하였음.

• • 피의자 연령별 현황⁵⁹⁾ • •

(단위 : 명)

연 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03	1,703	72	748	671	158	44	10
2004	2,202	114	1,005	815	205	57	6
2005	1,611	90	720	574	191	33	3
2006	1,502	62	614	585	183	43	15
2007.6	829	37	327	334	107	20	4

- 2007년도 6월 현재 성매매 피해 청소년 현황을 보면, 15세~ 16세가 152명(47.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7세~19세가 283명(38.8%)을 차지하고 있음.

58)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이용수단」,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8

59)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피의자 연령별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8월

● ● 피해 청소년 현황⁶⁰⁾ ● ●

(단위 : 명)

연 도	계	12세이하	13~14세	15세~16세	17세~19세
2003	1,316	5	163	611	537
2004	1,599	19	268	666	646
2005	1,124	5	169	438	512
2006	729	10	88	348	283
2007.6	340	5	8	152	145

- 2007년도 5월 현재 피의자 직업별 현황을 보면 회사원이 269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이 136명(16.9%), 무직이 123명(15.3%), 학생이 86명(10.7%)임.

● ● 피의자 직업별 현황⁶¹⁾ ● ●

(단위 : 명)

연 도	계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고소득	공무원	농임수산	학생	무직	서비스업	기타
2003	1,703	276	342	취합안함	22	13	160	347	179	364
2004	2,202	354	505	취합안함	26	15	249	451	197	405
2005	1,611	228	532	6	15	17	175	327	취합안함	311
2006	1,502	194	463	22	11	23	175	324	취합안함	290
2007.5	802	136	269	7	4	4	86	123	취합안함	173

- 2007년 5월 현재 피의자 재범별 현황을 보면 1범이 49명, 2범이 5명 4범 이상이 3명을 차지하고 있음.

6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피해 청소년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8월

6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피의자 직업별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8월

● ● 피의자 재범별 현황⁶²⁾ ● ●

(단위 : 명)

연 도	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03	1,703	1,599	86	11	4	3
2004	2,202	1,959	180	41	12	10
2005	1,611	1,504	75	21	5	6
2006	1,502	1,415	62	14	5	6
2007.5	802	745	49	5	0	3

□ 대상청소년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07년 5월 총 326명 중 15세~16세가 146명(44.7%), 17세~19세는 140명(42.9%), 13세~14세는 35명(10.7%)임.

● ● 대상청소년 연령별 현황⁶³⁾ ● ●

(단위 : 명)

연 도	계	12세이하	13~14세	15세~16세	17세~19세
2003	1,316	5	163	611	537
2004	1,599	19	268	666	646
2005	1,124	5	169	438	512
2006	729	10	88	348	283
2007.5	326	5	35	146	140

□ 2007년도 5월 현재 대상청소년 직업별 현황을 보면, 무직이 170명(52.1%), 중학생이 74명(22.6%), 고등학생이 60명(18.4%)임.

6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피의자 재범별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8월

6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대상청소년 연령별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8월

● ● 대상청소년 직업별 현황⁶⁴⁾ ● ●

(단위 : 명)

연 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생	무직	기타
2003	1,316	5	250	376	17	571	97
2004	1,599	10	279	356	37	777	140
2005	1,124	2	147	266	23	567	119
2006	729	9	140	167	6	327	80
2007.5	326	3	74	60	2	170	17

□ 2007년 5월 현재 대상청소년 성매매 동기현황을 보면, 유흥비 부족이 152명(46.6%), 생활비 마련 110명(33.7%)임.

● ● 대상청소년 성매매 동기 현황⁶⁵⁾ ● ●

(단위 : 명)

연 도	계	유흥비부족	생활비마련	친구권유	성적호기심	기타
2003	1,316	629	343	30	30	284
2004	1,599	693	433	32	35	406
2005	1,124	429	438	13	34	210
2006	729	271	286	9	28	135
2007.5	326	152	110	3	6	55

□ 성매매시 받은 평균넷가를 보면, 2007년 5월 현재 6~10만원이 110명(33.7%), 10~15만원 99명(30.3%), 15~20만원 45명(13.8%)임.

6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대상청소년 직업별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8월

6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대상청소년 성매매동기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8월

• • 성매매시 받은 평균넷가 현황⁶⁶⁾ • •

(단위 : 명)

연 도	계	5만원이하	6-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25만원	25만원이상	기 타
2003								
2004	543	105	162	192	47	12	10	15
2005	1,124	218	321	424	59	5	8	89
2006	729	79	210	283	64	3	10	8
2007.5	326	46	110	99	45	4	8	14

- 최초 성매매 시기는 2007년 5월 현재 15세~16세는 172명(52.7%), 17~18세 83명(25.4%), 13~14 63명(19.3%)임.

• • 최초 성매매 시기 현황⁶⁷⁾ • •

(단위 : 명)

연 도	계	12세이하	13~14세	15세~16세	17세~18세
2003					
2004	543	4	87	258	194
2005	1,124	14	246	477	387
2006	729	16	137	364	212
2007.5	326	8	63	172	83

- 대상청소년의 사후조치 현황을 보면, 2007년도 5월 현재 검찰송치가 211건 (64.7%) 보호자 인계가 76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음.

6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매매시 받은 평균 넷가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8월

6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최초 성매매시기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8월

● ● 대상청소년 사후조치 현황⁶⁸⁾ ● ●

(단위 : 명)

연 도	계	검찰송치 (구 형사입건)	보호사건송치	쉼터등입소	보호자인계
2003	1,316	37	22	72	1,185
2004	1,599	53	26	168	1,352
2005	1,124	30	14	167	913
2006	729	60	25	116	528
2007.5	326	211	10	29	76

-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이 쉬워 일대일 성매매로 이루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알선업자를 통한 성매매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해외 성매매 사이트의 경우 IP추적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68)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대상청소년 사후조치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8월

IV

성폭력예방정책 평가



1. 아동 성폭력문제 심각

- 참여정부는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취약 계층의 성폭력방지를 위해 성폭력방지 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아동 피해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피해자 현황>을 보면, 2006년 12월 현재 총 15,324명으로 남자 755명, 여자 14,569명에 이르고 있음.
- 2006년도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세가 5,077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세 이하의 아동은 2,178명으로 전년대비 55.3% 증가하였음.
- 한편 남자아동의 성폭력 피해도 증가하여 12세의 경우 2004년도 16명, 2005년도 30명, 2006년도 36명, 2007년 3월 현재 3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또한 60세를 초과한 노인의 경우 2004년도 201명에서 2006년 241명으로 최근 2년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성범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흡함.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⁶⁹⁾ ● ●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월
총 계		14,089	13,446	15,324	3,380
남 자	소 계	468	468	755	305
	6세	8	9	9	4
	12세	16	30	36	37
	15세	27	17	63	9
	20세	46	63	72	41
	30세	128	113	161	53
	40세	111	116	84	35
	50세	62	58	94	24
	60세이하	19	14	22	8
	60세초과	10	13	11	13
	미 상	41	35	203	81
여 자	소 계	13,621	12,978	14,569	3,075
	6세	155	145	163	33
	12세	542	554	772	186
	15세	1,068	647	1,135	260
	20세	2,958	2,319	2,909	676
	30세	3,773	4,108	4,916	1,012
	40세	1,425	1,502	1,719	346
	50세	1,171	1,193	1,500	340
	60세이하	295	296	409	93
	60세초과	191	212	230	42
	미 상	2,043	2,002	816	87

□ 한편 2007년도 상반기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1세~50세(1,672명)로 전체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19세 이하의 아동은 909명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음.

69)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폭력피해자 연령별 현황」, 경찰청, 2007. 8월

- 14세의 경우 2005년도 92명에서 2006년도 193명, 2007년 상반기 112명으로 지난해 성폭력 가해자는 전년보다 109.7% 증가하였으며, 14세미만은 2005년도 20명에서 2006년 42명 2007년 6월 25명으로 나타남.

• •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⁷⁰⁾ • •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총 계		15,018	13,695	15,851	7,808
소 년	소 계	1,490	1,329	1,811	989
	14세미만	13	20	42	25
	14세	97	92	193	112
	15세	139	213	284	168
	16세	222	254	346	177
	17세	313	254	349	214
	18세	406	268	357	169
	19세	300	228	240	124
성 인	소 계	12,865	12,020	13,797	6,701
	20세	240	176	173	62
	21세	243	200	196	82
	22세	370	335	319	148
	23세	410	394	394	179
	24세	479	373	424	255
	25세	459	417	461	222
	26-30세	2,251	1,860	2,158	1,046
	31-35세	2,227	1,997	2,252	1,062
	36-40세	1,879	1,899	2,173	1,003
	41-50세	2,893	2,862	3,279	1,672
	51-60세	980	1,021	1,283	659
	61-70세	330	353	530	222
	71세이상	104	133	155	89
미 상		663	346	243	118

7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폭력가해자 연령별 현황」, 경찰청, 2007. 8월

- 가해자 직업별 현황을 보면, 2006년 기타가 6,557명, 피고용자 5,409명, 전문직이 379명, 공무원이 162명, 종교인이 62명으로 나타남. 특히 공무원이 경우 2005년 전년대비 67% 증가하였음.

● ● 가해자 직업별 현황⁷¹⁾ ● ●

구 분	계	피고용자	전문직	종교가	공무원	자영자	기타
2004년	15,018	5,409	308	42	141	2,793	6,325
2005년	13,695	5,031	298	52	97	2,619	5,598
2006년	15,851	5,887	379	62	162	2,804	6,557
2007년 6월	7,800	2,882	190	-	62	1,375	3,291

- 성폭력발생시간별 현황을 보면, 2007년도 6월 현재 심야(00:00~04:00)가 2,282건, 밤(20:00~24:00)이 1,494건, 오후(12:00~18:00)가 1,179건임.

● ● 성폭력 발생시간별 현황⁷²⁾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총 계	12,511	14,089	13,446	15,326	7,394
심 야 (00:00~04:00)	3,365	4,784	4,444	4,612	2,282
새 벽 (04:00~07:00)	1,220	1,607	1,772	2,029	909
오 전 (07:00~12:00)	1,646	1,607	1,553	1,972	977
오 후 (12:00~18:00)	2,508	2,164	2,129	2,395	1,179
초저녁 (18:00~20:00)	1,191	990	867	1,187	553
밤 (20:00~24:00)	2,581	2,937	2,681	3,131	1,494
미 상	0	0	0	0	0

7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가해자 직업별 현황」, 2007. 8월

7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폭력 발생시간대별 현황」, 경찰청, 2007. 8월

2. 장애인 성폭력 상담실적

-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을 보면 상담소는 2005년 172개에서 2007년 6월 현재 215개로 43개소 증가하였으며, 성폭력 상담건수는 2005년 46,212건에서 2006년 57,865건, 2007년 6월 현재 28,08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 운영실적 현황⁷³⁾ • •

연도말 기준, (단위 : 개소, 건, 명)

연도별	개소수	종사자수			상담실적			개소당 평균상담 실적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 봉사자	계	성폭 상담	기타상담	
2005년	172	530	530	-	132,201	46,212	85,989	769
2006년	202	1,590	590	1,000	119,655	57,865	61,790	592
2007. 6월	215	1,403	565	838	60,477	28,085	32,392	281

* 성폭상담소(통합상담소포함)와 장애인전문성폭상담소 실적 포함

- 상담자 및 상담방법 현황을 보면, 전체상담자 수는 2005년 132,201건에서 2006년 119,692건, 2007년 6월 현재 60,477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장애인 성폭력 상담자는 2005년 10,692건, 2006년 20,763건, 2007년 6월 현재 6,369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특히 2006년 장애인 상담건수는 2005년도와 비교해 볼 때 9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7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운영실적 현황」, 여성가족부, 2007, 10

- 2007년 6월 상담방법을 보면 전화상담이 5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내방 23.7%, 방문상담 14.8%, 사이버 상담 5.2%로 나타남.

• • 상담자 및 상담방법 현황⁷⁴⁾ • •

(단위 : 건, %)

연도	계	내담자					상담방법				
		본인	가족친인척	동료 이웃 교사등	기타		내방	방문	전화	사이버	기타
2005년	전체	132,201	96,568	19,820	8,098	7,715	18,929	11,078	59,995	39,643	2,556
		100%	73.0	15.0	6.1	5.8	14.3	8.4	45.4	30.0	1.9
	장애인	10,692	4,281	2,813	1,516	2,082	1,787	2,971	5,295	143	496
		100%	40.0	26.3	14.2	19.5	16.7	27.8	49.5	1.3	4.6
2006년	전체	119,655	78,685	18,696	8,678	13,596	27,930	15,400	65,909	8,512	1,904
		100%	65.8	15.6	7.2	11.4	23.3	12.9	55.1	7.1	1.6
	장애인	20,763	12,552	3,574	2,792	1,845	4,781	7,337	7,991	318	336
		100%	60.5	17.2	13.4	8.9	23.0	35.4	38.5	1.5	1.6
2007. 6월	전체	60,477	40,191	9,252	4,389	6,645 (1,127)	14,373	8,964	33,121	3,127	892
		100%	66.5	15.3	7.3	10.9	23.7	14.8	54.8	5.2	1.5
	장애인	6,369	3,243	1,244	752	1,130(3)	1,126	1,806	3,053	200	184
		100%	50.9	19.5	11.8	17.8	17.7	28.4	47.9	3.1	2.9

* 장애인현황은 일반상담소의 장애인 상담현황 및 장애인상담소의 장애인 상담현황 포함

- 2007년 6월 상반기 상담내용을 보면, 전체상담 중 '성 상담'이 8,884건으로 가장 많고 가정폭력이 5,087건, 가족문제가 4,923건, 부부갈등이 4,763건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상담은 가정폭력 463건, 성 상담이 404건, 가족문제가 217건으로 나타남.

7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상담자 및 상담방법 현황」, 여성가족부, 2007, 10

- 특히 장애인의 성 상담의 경우 2005년 320건에서 2006년 2,427건으로 약 7.6배 증가함.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장애인 성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함.

• • 상담내용⁷⁵⁾ • •

(단위 : 건,%)

연도	계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 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 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05년	전체	136,495	46,251	90,244	8,977	2,356	4,000	6,271	48,306	5,437	1,291	13,606
		100%	33.9	66.1								
	장애인	10,816	8,078	2,738	755	55	11	11	320	323	1	1,262
		100%	74.7	25.3								
2006년	전체	125,401	58,152	67,249	11,213	1,769	4,809	8,193	18,368	7,419	1,058	14,420
		100%	46.4	53.6								
	장애인	21,029	8,979	12,050	1,406	52	898	1,613	2,427	1,310	1,234	3,110
		100%	42.7	57.3								
2007. 6월	전체	62,915	28,085	34,830	5,087	587	2,448	4,763	8,884	4,923	444	7,694
		100%	44.6	55.4								
	장애인	6,577	4,623	1,954	463	30	4	16	404	217	1	819
		100%	70.3	29.7								

* '04년 : 상담 1건당 주가 되는 내용 1건만 표기, '05년이후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 각각의 건수로 계산

- 2007년 상반기 피해자 연령을 보면,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339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피해자는 14세이상 19세 미만이 167건(38%)으로 가장 많았음. 특히 19세 이하 장애미성년자의 경우 상담비율이 45.3%로 2006년 34.4%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7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상담내용」, 여성가족부, 2007, 10

□ 2007년 6월 현재 피해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13,359건 중 성추행이 5,646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4,830건(36.2%), 기타가 2,832건(21.6%)으로 나타났다.

• • 피해자 연령별 현황 • •

(단위 : 명,%)

연도	계(명)		피해자 연령(명)						
			유아 (7세미만)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미상
2005년	전체	24,911	1,021	2,922	6,697	7,335			2,612
		100%	4.1	11.7	26.9	29.4			10.5
	장애인	2,043	49	322	676	599			221
		100%	2.4	15.8	33.1	29.3			10.8
2006년	전체	27,286	1,106	2,971	6,176	9,154	2,955	2,800	2,124
		100%	4.1	10.9	22.6	33.5	10.8	10.3	7.8
	장애인	1,540	5	90	435	507	266	197	40
		100%	0.3	5.8	28.3	32.9	17.3	12.8	2.6
2007. 6월	전체	12,887	489	1,357	3,248	3,399	1,735	1,368	1,291
		100%	3.8	10.5	25.2	26.4	13.5	10.6	10.0
	장애인	440	2	30	167	115	65	49	12
		100%	0.5	6.8	38.0	26.1	14.8	11.1	2.7

• • 피해 유형별 현황⁷⁶⁾ • •

(단위 : 건,%)

연도	계	강 간	성추행	기 타
2005년	24,911	12,615	10,220	4,406
	100%	46.3	37.5	16.2
2006년	27,286	11,588	10,714	4,984
	100%	42.5	39.3	18.2
2007. 6월	13,359	4,830	5,646	2,832
	100%	36.2	42.2	21.6

* 기타내역 : 성희롱,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 등

7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피해유형별 현황」, 여성가족부, 2007, 10

- 한편 장애인 상담소 장애유형별 현황을 보면, 2007년 6월 현재 472명 중 정신지체가 293명(62.1%), 지체장애 58명(12.3%), 시각장애 35명(7.4%), 정신장애 31명(6.6%)으로 나타남.

• • 장애인 상담소 장애유형별 현황⁷⁷⁾ • •

(단위 : 명,%)

연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정신	기타
2005년	742	97	48	23	34	468	58	14
	100%	13.0	6.5	3.1	4.6	63.1	7.8	1.9
2006년	816	135	35	36	34	494	55	27
	100%	16.5	4.3	4.4	4.2	60.6	6.7	3.3
2007. 6월	472	58	22	35	18	293	31	15
	100%	12.3	4.7	7.4	3.8	62.1	6.6	3.1

- 2007년 상반기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상담자 전체 14,460명 중 애인/동급생/선후배가 3,103명(21.5%), 모르는 사람 2,446명(17%), 친척/친인척/배우자 2,229명(15.4%)으로 나타남.

• • 가해자 유형별 현황⁷⁸⁾ • •

(단위 : 명,%)

연도	계	친척 친인척 배우자	애인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강 사사	직장동료 상사	모르는 사람	기타
2005년	25,395	4,686	4,219	2,519	610	3,355	4,272	5,734
	100%	18.5	16.6	9.9	2.4	13.2	16.8	22.6
2006년	27,978	4,515	5,607	2,654	966	3,883	4,621	5,732
	100%	16.1	20.1	9.5	3.4	13.9	16.5	20.5
2007. 6월	14,460	2,229	3,103	1,434	399	1,779	2,466	3,050
	100%	15.4	21.5	9.9	2.8	12.3	17.0	21.1

* '05년 이후 : 피해자 1인에 대한 다수 가해자 모두 표기

기타내역 : 종교인, 복지시설근무자, 채팅상대자, 미파악 등

7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장애인 상담소 장애유형별 현황」, 여성가족부, 2007, 10

78)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가해자 유형별 현황」, 여성가족부, 2007, 10

- 2007년 상반기 피해자 지원내용별 현황을 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19,903건(61.2%), 수사·법적지원 6,642건(20.5%), 의료지원 1,867건(5.7%)임.

● ● 피해자 지원내용별 현황(조치결과⁷⁹⁾) ● ●

(단위 : 건,%)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연계	수사·법적 지원	기타
2005년	50,219	27,298	5,262	661	10,536	6,462
	100%	54.3	10.5	1.3	21.0	12.9
2006년	57,207	32,226	5,062	660	12,794	6,465
	100%	56.3	8.8	1.2	22.4	11.3
2007. 6월	32,502	19,903	1,867	1,153	6,642	2,937
	100%	61.2	5.7	3.5	20.5	9.1

* '04년이후 운영실적 항목에서 「시설입소연계」 항목은 '쉼터',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입소'를, 「기타」 항목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등 포함함

● ● 아동성폭력 상담현황 / 이용아동수(장애인⁸⁰) ● ●

(단위:명)

구 분		총계(장애인)	만7세미만(장애인)	만7세-만13세미만 (장애인)	만13세이상(장애인)
04년	서울센터	225(9)	111(1)	102(4)	12(4)
05년	계	611(37)	245(-)	306(7)	60(30)
	서울센터	479(17)	202(-)	244(3)	33(14)
	영남센터	50(1)	16(-)	27(-)	7(1)
	호남센터	82(19)	27(-)	35(4)	20(15)
06년	계	1,039(53)	441(7)	517(28)	81(18)
	서울센터	609(8)	282(1)	303(4)	24(3)
	영남센터	228(7)	89(1)	106(5)	33(1)
	호남센터	202(38)	70(5)	108(19)	24(14)
07.6	계	512(27)	190(3)	266(15)	57(12)
	서울센터	312(10)	125(-)	164(4)	23(6)
	영남센터	116(6)	34(0)	64(4)	18(2)
	호남센터	84(11)	31(0)	37(7)	16(4)

79)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피해자 지원내용별 현황」, 여성가족부, 2007, 10

8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아동성폭력 상담현황」, 여성가족부, 2007, 10

• •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 •

구분	예산(국비 지원)				설치일자 (개소일)	위탁기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서울	503	445	450	500	2004.6.18	연세의료원
영남	-	500	450	425	2005.6. 9	경북대병원
호남	-	500	450	425	2005.6.29	전남대병원

□ 2007년도 현재 전국에 1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 전국 센터별 세부운영실적⁸¹⁾ • •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위탁기관 (개소일)	예산				
			2005 (설치비)	2006			2007 운영비
				계	설치비	운영비	
서울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58	경찰병원 (‘05.8.31)	-	-	-	-	(125,000)
부산	부산 연제구 거제동 1330	부산의료원 (‘05.12.22)	173,421	111,000	-	111,000	125,000
인천	인천 동구 송림4동 318-1	인천의료원 (‘06.3.31)	133,400	111,000	-	111,000	125,000
울산	울산 중구 태화동 123-3	동강병원 (‘06.1.25)	138,379	111,000	-	111,000	125,000
강원	강원 춘천시 효자3동 17-1	강원대병원 (‘06.2.2)	138,400	111,000	-	111,000	125,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청주의료원 (‘06.2.8)	138,400	111,000	-	111,000	125,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전북대병원 (‘06.2.28)	133,400	111,000	-	111,000	125,000
경북	경북 안동시 북문동 470	안동의료원 (‘06.1.12)	148,400	111,000	-	111,000	125,000
대구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62	대구의료원 (‘06.5.9)	-	235,900	152,650	83,250	125,000
전남	광주시 동구 서석동 588	조선대병원 (‘06.9.4)	-	233,400	150,150	83,250	125,000
충남	대전시 중구	충남대병원	-	219,900	136,650	83,250	125,000

8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전국센터별 세부운영실적」, 여성가족부, 2007, 10

구 분	소 재 지	위탁기관 (개소일)	예 산				
			2005 (설치비)	2006			2007 운영비
				계	설치비	운영비	
	대사동 640	(‘06.9.7)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아주대병원 (‘06.11.10)	-	226,900	143,650	83,250	125,000
경남	마산시 중앙동 3	마산의료원 (‘06.12.1)	-	233,400	150,150	83,250	125,000
제주	제주시 연동 1963-2	한라병원 (‘06.12.8)	-	226,900	143,650	83,250	125,000

※ 서울센터의 경우 협약체결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 2006년도 전국 14개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4,764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으며 그 중 성폭력이 2,866명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센터별 지원건수를 보면 총 14,699명 중 상담 7,386건, 진료 3,592건, 피해자 조서는 2,056건임.

● ● 연도별 폭력피해 유형별 이용자수(2006)현황⁸²⁾ ● ●

(단위:명)

구분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총계	4,764	2,868	1,284	48	226	338
서울	758	718	25	2	13	-
부산	621	324	191	7	30	69
대구	343	153	144	13	11	22
인천	683	419	170	3	29	62
울산	386	179	106	1	42	58
경기	39	28	3	-	5	3
강원	280	146	105	4	6	19
충북	482	215	222	4	12	29
충남	251	159	79	-	5	8
전북	381	261	77	3	16	24
전남	207	116	45	4	31	11
경북	284	126	102	6	17	33
경남	29	13	11	-	5	-
제주	20	11	4	1	4	-

8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도별 폭력피해 유형별 이용자 수 현황」, 여성가족부, 2007, 10

• • 전국 센터별 지원현황(2006⁸³⁾) • •

(단위:명)

구분	계	상담	진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총계	14,699	7,386	3,592	1,123	542	2,056
서울	3,404	1,379	1,128	467	48	382
부산	1,838	983	435	113	81	226
대구	1,326	756	358	74	36	102
인천	1,864	942	403	117	66	336
울산	1,151	667	273	79	19	113
경기	147	70	40	16	5	16
강원	822	435	174	38	35	140
충북	1,462	671	369	49	109	264
충남	549	268	91	44	15	131
전북	797	461	104	45	42	145
전남	400	217	45	39	41	58
경북	860	495	160	37	41	127
경남	50	25	8	5	3	9
제주	29	17	4	-	1	7

8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전국 센터별 지원현황」, 여성가족부, 2007, 10

3. 사회적 성차별 분석결과

-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관련 진정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사회에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성차별 진정사건 통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성차별 진정접수는 2003년 67건에서 2004년 58건, 2005년 196건, 2006년 205건으로 4년 사이에 무려 3.3배가 증가했음. 2007년 6월말 현재는 127건으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 연도별 성차별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⁸⁴⁾(’03~’07.6) ●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합 계 (%)	62	58	196	205	24	21	26	14	17	25	127	648 (100)
성 별 (%)	34	25	55	45	3	3	7	2	5	3	23	182 (28.1)
성희롱 (%)	1	-	62	105	12	13	12	9	11	20	77	245 (37.8)
혼인여부 (%)	4	7	9	22	2	-	1	-	1	-	4	46 (7.1)
임신출산 (%)	15	15	5	9	1	1	2	-	-	1	5	49 (7.6)
가족상황 (%)	2	4	15	8	1	-	2	1	-	1	5	34 (5.2)
용모/신체조건 (%)	4	6	45	12	4	4	2	2	-	-	12	79 (12.2)
성적지향 (%)	2	1	5	4	1	-	-	-	-	-	1	13 (2.0)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8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도별 성차별 진정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07, 9

□ 성차별 사유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성희롱에 의한 성차별이 전체 648건 중 245건(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요인 182건(28.1%), 용모/신체조건 79건(12.2%), 임신출산 49건(7.6%), 혼인여부 46건(7.1%), 가족상황 34건(5.2%), 성적지향 13건(2.0%) 순으로 나타났다.

□ 사회 성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된 최근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성차별 관련 진정요지(2007년도 상반기 접수 사례)⁸⁵⁾ • •

구 분	진 정 내 용 요 약
성희롱	진정인은 2006. 12. 구인광고를 통해 OO센터에 채용되었는데, 회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모텔 앞까지 데려가고, 처녀가 아니라고 하는 등 성희롱함.
성별	피진정인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남학생은 4개반, 여학생은 2개반으로 정원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바, 이로 인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함.
용모·신체조건	여승무원 채용 시 키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임.
임신·출산	OO지원센터에서 2007. 6. 4. 진정인을 불러 임신한 사람이 어떻게 일하겠느냐면서 자진 사퇴를 하라고 했음. 이에 진정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자 2007. 6. 8. 다시 진정인을 불러 2007. 6. 18.부터 3개월간 무급휴가를 가라고 강요하고 진정인이 동의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무급 휴가처리를 하였음.
혼인여부	진정인은 2006. 8. 경 12개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OO유통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7. 11. 결혼 할 예정인바, 피진정인은 결혼할 여자는 정규직 전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가족상황	진정인의 아이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인바, 2006년에는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오후 6시까지 맡아 주었으나, 2007년에는 OOOO로 변경하면서 맞벌이 부부를 1순위로 하여 편부모인 진정인은 탈락되었는데 이는 차별임.
성적지향	진정인은 OO 카페에서 '이반의 프로포즈'와 'armyhun'을 운영하였는데 이반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라 하여 블라인드 처리를 당했는데 이는 차별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함.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7.7, 안명옥의원 제정리

□ 한편, 노동부가 주관하는 민간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정책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노동부는 2000년부터 사업장별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부 성희

8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차별 진정요지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2007, 9

「통·점검실적」 결과자료를 살펴보면, 점검대상 업체의 80% 이상은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하지만, 확인감사 결과 확인점검업체의 절반정도인 49%(3년 평균)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남.

● ● 직장내 성희롱 예방점검 실적('04~'06)⁸⁶⁾ ● ●

연도	자율점검						확인점검				
	점검대상	점검사 업장수 (A)	위반사 업장수 (B)	B/A ×100	조치내용(건)		점검사 업장수 (C)	위반사 업장수 (D)	D/C ×100	조치내용(건)	
					시정 완료	과태료				시정 완료	과태료
'04	20~29인 제조업	6,110	1,747	28.6%	1,747	-	360	168	46.6%	153	15
'05	20~29인 비제조업	7,354	1,058	14.4%	1,058	-	856	472	55.1%	447	25
'06	10~19인 제조업	7,593	1,313	17.3%	1,313	-	371	168	45.3%	166	2

※ 자료 : 노동부, 안명옥의원 재정리

주) 확인점검: 2000년부터 자율점검을 실시한 업체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심지어 정부의 확인점검마저 최근 들어 줄고(856건('05)→371건('06)) 있는 추세여서 사업장내 성희롱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한편 여성가족부는 2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남여차별법령' 385개를 발굴했다. 이중 현재 개정완료 된 법령은 111개로 불과 28.8%에 그치고 있음.

8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점검 실적」, 노동부, 2007, 10

• • 남녀차별법령 현황⁸⁷⁾ • •

발굴년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총계
2005년	47	40	117	204
2006년	20	35	126	181
총 계	67	75	243	385
개 정	20(29.9%)	15(20%)	76(31.3%)	111(28.8%)

- 정부는 성희롱은 언어를 통한 성폭력으로 성희롱 예방정책을 체계화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또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를 위한 평가관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함.

8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남녀차별법령 현황」, 여성가족부, 2007, 10

4.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 성희롱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내 성희롱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2006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2,025명 중 427명으로 2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 빈도⁸⁸⁾ ● ●

계	성희롱 경험 있다	성희롱 경험 없다
2,025명	427명	1,598명
100.0%	21.1%	78.9%

※ 자료 : 여성가족부, 2006.1.31

- 성희롱의 유형은 상대를 앞에 두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으며, 입맞춤이나 포옹·뒤에서 껴안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성희롱 순이었음. 이러한 성희롱 경험수치는 작년보다 16.1%p나 오른 것이어서 정부의 성희롱 예방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음.

88)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도별 성차별 진정현황」, 여성가족부, 2007, 2

• • 유형별 성희롱 행태 추이분석⁸⁹⁾ • •

구 분		2005년	2006년	증 감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2.3%	2.6%	+0.3%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1.5%	1.9%	+0.4%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0.8%	0.8%	0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11.7%	16.2%	+4.5%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8.2%	13.4%	+5.2%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1.2%	2.5%	+1.3%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0.4%	0.4%	0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0.8%	0.9%	+0.1%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11.2%	15.1%	+3.9%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1.8%	2.3%	+0.5%
	직접 또는 팩스나 PC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편진, 사진, 그림 보내기	0.8%	0.6%	-0.2%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0.3%	0.4%	+0.1%
합 계				+16.1%

※ 자료 : 여성가족부, 2006.1.31, 안명옥의원 재정리

주1) 유효표본 수 2,025명임.

□ 또한 성희롱이 주로 발생하는 자리는 회식자리(24.4%)와 사무실(11.1%)이며, 주로 직장상사(24.8%)에 의해 가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하지만 성희롱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참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응답자의 19.7%가 참는다고 답변을 했으며, 이는 2005년 조사의 52.0%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임. 그러나 2005년에 12.1%였던 무응답이 63.5%로 크게 늘었고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동료나 상사와의 상의, 상담창구를 이용하는 경우는

89)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유형별 성희롱 행태 투이분석」, 여성가족부, 2007, 2

모두 감소해(16.9%→7.3%, 6.6%→4.7%, 2.4%→0.2%) 대부분의 피해자가 성희롱에 적극 대처하기보다는 침묵하거나 사건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06년 공공기관, 유형별 성희롱 실태⁹⁰⁾ • •

발생장소		가해자	
회식자리	24.4%	상급자	24.8%
사무실	11.1%	동급자	6.6%
휴게실	1.3%	하급자	2.1%
야유회	1.6%	다른기관 직원	0.5%
기타	1.9%	기타	2.8%
무응답	58.8%	무응답	63.2%

※ 자료 : 여성가족부, 2006.1.31

주1) 성희롱 경험자 427명을 대상으로 나타난 조사값임.

• • 성희롱 대처(대응) 추이분석⁹¹⁾ • •

구 분	2005년	2006년
불쾌감(모욕감, 수치심)이 있었지만 그냥 참았다	52.0%	19.7%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화를 냄	16.9%	7.3%
친구나 가족과 상의	1.2%	1.2%
동료나 상사와 상의	6.6%	4.7%
상담 창구나 전담 창구 등에 문의	2.4%	0.2%
관련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	0.0%	0.9%
기타	8.8%	2.6%
무응답	12.1%	63.5%

※ 자료 : 여성가족부, 2006.1.31

주1) 성희롱 경험자 427명을 대상으로 나타난 조사값임.

9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6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 여성가족부, 2007, 2

91)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희롱 대처추이 분석」, 여성가족부, 2007, 2

- 이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처방법 등을 습득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참여율은 2005년 89.5%에서 2006년 91.7%로 증가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라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음.

● ●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여부 추이분석⁹²⁾ ● ●

구 분	2005년			2006년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있 다	91.4%	86.6%	89.5%	94.3%	88.6%	91.7%
없 다	4.9%	9.4%	6.7%	5.3%	10.9%	7.9%
무응답	3.8%	4.0%	3.8%	0.4%	0.5%	0.4%

※ 자료 : 여성가족부, 2006.1.31

주1) 유효표본 수 2,025명임.

- 기관별 교육 참석율은 시도 교육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기관의 참석율이 가장 낮았음. 특히, 국가기관 중 입법부의 교육 참여율이 가장 적게 나타나 관련법을 제정하고도 제일 안 지키는 꼴이 되었음.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의 참여율이 100%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 공공기관별 교육 참석율⁹³⁾ ● ●

단위 : %

구분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 단체	시·도 교육청
	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기관	계	광역	기초		
교육 참여율	105.8	68.2	108.0	124.5	91.7	122.0	125.4	121.5	144.7	170.7

- 하지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의 사유를 보면, ‘참석할 시간이 없어

9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여부 추이분석」, 여성가족부, 2007, 2

9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공공기관별 교육 참석율」, 여성가족부, 2007, 2

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7.1%로 2005년 37.3%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충실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여 이유 추이분석⁹⁴⁾ ● ●

구 분	2005년	2006년
참석할 시간이 없어서	30.7%	38.6%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6.8%	8.5%
외부에 출장 등 부재중이어서	27.3%	20.9%
기타	15.9%	20.3%
무응답	19.3%	11.8%

※ 자료 : 여성가족부, 2006.1.31

주1) 성희롱 예방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1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값임.

□ 또한 직장내 고충상담창구에 대한 낮은 이용률도 정책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방증으로 보여짐. 공공기관 내 고충상담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은 3.5%로 밖에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음.

● ● 성희롱 고충상담 여부⁹⁵⁾ ● ●

직장 내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3.5%
없다	92.9%
무응답	3.6%

※ 자료 : 여성가족부, 2006.1.31

9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여 이유」, 여성가족부, 2007, 2

95)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희롱 고충상담 여부」, 여성가족부, 2007, 2

- 한편, 성문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나타내는 성의식 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이 40대 이상의 고연령층보다 높았으며, 직장경력이 10년 미만으로 짧아질수록 성의식 점수가 높아져 연령·직책·직장경력이 많아질수록 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고 성희롱 예방의식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조사대상별 성의식 점수 및 성희롱 예방의식 점수% • •

구 분		성의식	성희롱 예방의식
성 별	남성	67.61	74.21
	여성	78.29	80.66
연령별	20대	76.58	80.08
	30대	73.96	79.03
	40대	70.21	74.98
	50대	68.85	73.75
직책별	고위관리직	69.45	76.17
	중간관리직	71.04	75.72
	직원	73.95	78.34
	기타	75.01	78.97
직장경력별	5년 미만	74.64	79.24
	5년 이상 10년 미만	74.65	79.89
	10년 이상 15년 미만	72.79	77.78
	15년 이상 20년 미만	71.11	75.51
	20년 이상	70.04	74.21
전체		72.61	77.26

※ 자료 : 여성가족부, 2006.1.31

주1) 유효표본 수 2,025명임.

-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발표하는데, 2006년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수상에는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사상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정되었다. 반면에 성희롱 실태가 심각해 여성가족부가 특별관리하는 부진기관은 175개(전체 848개 중 20.6%) 기관이나 되고 있음.

96)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조사대상별 성의식 점수 및 성희롱 예방의식 점수」, 여성가족부, 2007, 2

5. 학교 내 성폭력 문제점

-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충격적으로 변하는 등 학교내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남.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2003년 44명, 2004년 111명, 2005년 54명, 2006년 115명, 2007년6월 105명으로 성범죄가 급증했고, 5년간 총 427명의 학생 중 퇴학조치 된 학생수만 90명에 이르렀음.
- 2005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22건으로 54명이 징계를 받았고, 2006년에는 51건이 발생하여 115명이 징계를 받았음. 성범죄 1건당 징계학생수가 2005년 2.5명에서 2006년 2.7명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 내 성범죄가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은 10명이 징계를 받았음. 2006년 10명은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동기간 중학교 1.1배, 고등학교 1.0배 증가폭보다 훨씬 높아 이제 초등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음.

● ● 학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⁹⁷⁾ ● ●

(단위 : 건, 명)

연도별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유형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기타
2003년	19	44	1	14	12	4	13
2004년	26	111	4	16	7	58	26
2005년	22	54	1	11	9	10	23
2006년	51	115	13	16	30	13	43
2007년6월	41	105	26	9	34	5	31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 학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⁹⁸⁾ ● ●

(단위 : 건, 명)

구분	초		중		고		계	
연도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2003	0	0	13	35	6	9	19	44
2004	1	4	9	16	16	91	26	111
2005	1	3	7	14	14	37	22	54
2006	1	10	15	30	35	75	51	115
2007	0	0	16	50	25	55	41	105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2003년부터 2007년6월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7명, 경기 54명, 전북 39명, 경북 35명, 전남 25명, 충북 24명, 광주 24명, 부산 22명 순인 것으로 나타남.

97)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학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징계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98)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학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징계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 2003~2007.6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⁹⁹⁾ ● ●

지역	징계발생 건수(건)	징계발생 건수 비율(%)	학생수(명)	학생수 비율(%)
서울	18	11.3%	57	13.3%
부산	11	6.9%	22	5.1%
인천	11	6.9%	18	4.2%
대구	3	1.9%	8	1.9%
울산	2	1.3%	2	0.5%
광주	12	7.5%	24	5.6%
경기	16	10.1%	54	12.6%
울산	3	1.9%	10	2.3%
강원	1	0.6%	3	0.7%
충북	10	6.3%	24	5.6%
충남	9	5.7%	19	4.4%
전북	24	15.1%	39	9.1%
전남	9	5.7%	25	5.8%
경북	13	8.2%	35	8.2%
경남	14	8.8%	76	17.7%
제주	3	1.9%	13	3.0%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관련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 (’06~’07.6)’을 보면, 총 98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집단성폭행을 한 사건이 45건으로 50%를 차지해 교내 성범죄의 집단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음주 후 성폭행 한 사건은 16건(16.3%) 이나 되었고, 성폭행 후 가해자 학생이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유포하는 등 성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까지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음.

99)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징계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도 2006년 6건, 2007년6월까지 3건으로, 학교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교직원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3년 1,165명, 2004년 1,490명, 2005년 1,329명, 2006년 1,8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것은 2003년 하루 3.2명꼴이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6년 하루 5명꼴로 크게 급증한 것임. 성인 대비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3년 10.9%에서 2006년 1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의 학급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 연령대인 14세 미만의 경우 2003년 1.2%에서 2006년 2.3%로 상승했으며, 중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4~16세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39.6%에서 2006년 45.4%로 증가하였음.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증가와 함께 경찰로까지 넘겨진 미성년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임.

● ●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100) ● ●

(단위 : 명)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3
소년	14세 미만 (초등학생)	14(1.2%)	13(0.9%)	20(1.5%)	42(2.3%)	11(2.3%)
	14~16세 (중학생)	461(39.6%)	458(30.7%)	559(42.1%)	823(45.4%)	234(48.3%)
	17~19세 (고등학생)	690(59.2%)	1,019(68.4%)	750(56.4%)	946(52.2%)	239(49.4%)

100)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경찰청, 2007, 7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3
소계	1,165	1,490	1,329	1,811	484
성인대비 소년 성폭력 가해자비율	10.9%	11.6%	11.1%	13.1%	15.2%
성인(20세 이상)	10,723	12,865	12,020	13,797	3,180
미상	80	663	346	243	61
총계	11,968	15,018	13,695	15,851	3,725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에 따르면, 2007년6월 현재 전국 1만 983개 초·중·고교의 성교육 담당교사 11,083명인데, 이 중 성교육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4,267명(38.5%)임. 성폭력은 예방교육이 중요함에도 연수대상 교사들이 직무연수를 받지도 않고 있는 것임.

● ●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2007.6기준)¹⁰¹⁾ ● ●

급별	학교수 (개)	성교육담당 교사수(명)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자수(명)		
			6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없음
초	5,752	5,797	2,629	1,023	2,145
중	3,046	3,054	1,195	615	1,244
고	2,185	2,232	960	394	878
계	10,983	11,083	4,784	2,032	4,267

*주1: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없음’은 30시간 미만.

*주2: 성교육 담당교사 전공과목은 보건, 체육/교련, 가정, 초등, 기타.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 ●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2006~2007.6¹⁰²⁾) ● ●

구분	소속	가해자	사건 구분	발생일	사 건 개 요	조치결과
교사 對 학생	00초	강00	성추행	06.3.13.	강교사는 학생 2명을 학교에서 성추행함	정직 1월
학생 對 학생	○○중	이○○	성추행	06.3.26	마을 빈집으로 데리고 가 초등학교 3학년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함	특별교육 이수
학생 對 학생	00고	서00외 3명	성폭행	06.12.06	친구집에서 음주 후 성폭행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염00외 5명	성폭행	06.12.08	자취방에서 음주 후 집단 성폭행	전학 5명 특별교육 1명
학생 對 학생	00고	정00	성폭행	07.03.1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후 성폭행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정○○외2명	성폭행	07.3.12	피해자의 제의로 만나 합의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함	자퇴
학생 對 일반	○○고	이○○	성폭행	07.4.21	현금 절도 및 성인 2명 성폭행	위탁교육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외 4명	성폭행	07.06.05	모텔에 모여 음주 후 성폭행	특별교육 이수
교사 對 학생	○○고	류○○	성추행	06.6.13	교사가 다수의 여학생에게 팔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해임
학생 對 학생	○○중 외 4교	남○○외 11명	성폭행	06.4.8	가해학생이 집단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초	김○○외 9명	성희롱	06.6.27	6학년 학생 수련활동 중 김○○ 외 9명의 남학생이 피해 남학생 1명의 바지를 벗기는 등의 성희롱을 함.	학급교제1명 출석정지2명 사회봉사3명 학교봉사4명
학생 對 학생	○○중	김○○	성폭행	06.06.30	집에서 성폭행	강제전학
학생 對 학생	○○중	김○○	성폭행	06.07.19	김○○ 학생이 같은 몽골출신 학생을 성폭행	가해자는 몽골출신으로 강제출국 조치
학생 對 학생	○○중	지○○	성폭행	07.7.2	다세대 주택에서 성폭행함(6.22)	소년원 위탁 교육 실시
학생 對 학생	○○고	박○○	성폭행	06.4.28	하교길에 중 2학년생을 성폭행	자퇴 처리
학생 對 학생	○○고	신○○	성폭행	06.05.09	남학생이 고2 남학생을 수학여행지에서 성폭행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구○○외 2명	성폭행	06.5.22	오금공원 근처에서 여고 1학년생을 성폭행	퇴학 처분
학생 對 학생	○○고	이○○	성희롱	07.5.10	수학여행시 같은 학교 남학생을 샤워장면을 찍은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림	벌점20에 교내봉사3일
학생 對 학생	○○고	권○○	성폭행	07.5.7	남학생이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 성폭행	등교정지 후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양○○	성폭행	07.6.22	1학년 학생이 친구와 선배와 함께 여학생 3명과 술을 마시다 성폭행	상담 후 전학 조치 예정
학생 對 학생	○○고	김○○외2	성폭행	06.6.14	음주상태에서 성폭행 함	퇴학
학생 對 학생	○○중	정○○	성추행	06.8.29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의 성기를 만짐	사회봉사

102)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구분	소속	가해자	사건 구분	발생일	사 건 개 요	조치결과
학생 對 학생	○○고	신○○	성폭행	06.9.29	평소 알고 지내던 ○○○을 성폭행 함	특별교육이수
학생 對 학생	○○고	김○○	성폭행	07.3.29	음주상태에서 성폭행 함	퇴학
학생 對 학생	○○고	지○○	성추행	07.5.6	가슴을 만지 등 성추행 함	사회봉사
교사 對 학생	00고	황00	성희롱	06.5.3	황00교사가 수업중 여학생들에게 언어적 성 희롱	황00교사 06.9.1 타교로 전출
학생 對 학생	00고	이00외4명	성폭행	06.5.11	00고 이00외 5명이 00고 김00학생을 집단 성 폭행	이00외 4명 구속
교사 對 학생	00초	양00	성추행	07.5.14	00초 양00교사가 상습적으로 학급 담임 학생 들을 성추행	양00교사 직 위해제
학생 對 학생	-	강00외 2명	성폭력	06.3.25	오락실에서 만나 놀다가 여관에서 성폭행	퇴학 3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강00외 1명	성폭력	06.8.3	남학생 2명이 피서 온 여중생을 성폭행	퇴학 1명 특별교육 1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박00외 1명	성폭력	06.11.18	남학생 2명이 여중생과 어울려 놀다 성폭행	특별교육 2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00고 00고	하00외 3명	성폭력	07.4.6	평소 친분이 있는 30세 가량의 성인과 어울 려 놀다 성인의 자취방에서 성폭행 함	재판9/5 종결 선도위원회 개최 중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정00외 1명	성폭력	07.5.5	중학교 동창들과 놀다가 성폭행 함	퇴학 2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양00외 1명	성폭력	07.5.15	친구사이로 자취방에서 놀다 성폭행	퇴학1명 특별교육 1명
교사 對 학생	○○여 고	금○○	성추행	06.7.25.	야간자율학습 후 23:30경 교사 금○○가 여학 생 ○○○을 자기집에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함	해당법인에서 중징계(파면)
교사 對 교생	○○중	조○○	성추행	07.5.3.	일과 중 교사 조○○가 여자 교육실습생 ○ ○○ 등을 체육실에서 손을 잡고, 엉덩이를 건드리는 등 추행함	해임
학생 對 학생	○○중	정○○외 4명	성폭행	06.3.21.	18시경 정○○의 집에서 여중생○○○을 칼 로 위협하여 손발을 묶고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고	박○○외 1명	성폭행	06.6.18.	05:30경 술에 취한 여고생 ○○○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고	곽○○ 외 2 명	성폭행	06.9.17.	02시경 곽○○과 자퇴생 2명이 모텔에서 소 주에 만취하여 잠이든 자퇴생 ○○○을 성폭 행함	구속
학생 대 학생	○○중	가해자 확인 불가	성폭행	07.1.3.	11:00경 ○○초 ○○○이 학원에서 돌아오던 중에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중학생으로 보 이는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함	구속
학생 對 학생	○○공 고	이○○	성폭행	07.1.9.	23시경 이○○가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 중생을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중	양○○	성추행	07.3.9.	15:00경 양○○이 무단조퇴하여 아파트 주변	구속

구분	소속	가해자	사건 구분	발생일	사 건 개 요	조치결과
					을 배회하다 ○○초 여학생 3명을 목격하고 그 중 한명을 따라가 성추행함	
학생 對 학생	○○고	김○○외 4명	성폭행	07.6.15.	01시경 가해자(고2명,자퇴생3명)가 교회 부근 공터에서 학교를 가지않고 배회하던 이○○ 을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아동	0 0 고	장 0 0	성추행	06.4.28	효성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2년 여학생 강제 성추행 함.	전학
학생 對 학생	0 0 중	이 0 0 외 3명	성폭행	06.8.6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여관에 투숙하여 음 주 후 가해학생 4명이 피해학생 1명을 성폭 행함	소년원 특별교육 이수 후 전출
학생 對 유아	0 0 고	이 0 0	성추행	07.5.20	연립주택 옆집 5세 여아를 대상으로 밤 9시 이후 부모가 없는 시간을 이용, 같이 놀아준 다는 핑계로 성추행	자퇴
학생 對 학생	0 0 고	변 0 0 외 2명	성추행	07.5.22	수학여행 중 같은 반(남학생) 학생들이 잠든 친구의 팬티와 성기부근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5,6명이 둘러본 후 삭제한 사건	특별교육 5일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외3명	성폭력	06.5~7	2006년 5월에서 7월경 가해자의 집 및 아파 트 옥상에서 수회에 걸쳐 집단 성폭행	전학
학생 對 학생	00고	이00	성폭력	06.6.25	모여중생과 음주후 성폭행하여 경찰서에 송 치된 후 합의함	자퇴
학생 對 학생	00고	진00외3명	성폭력	06.08.01	월포해수욕장 민박집에서 서로 어울려 놀다 가 성폭행함	자퇴
교사대학생	00초	김00	성추행	06.3~10	6학년 담임을 하면서 여학생을 상대로 15회 가량 성추행을 함	해임
학생 對 학생	00고	탁00 외 1 명	성추행	07.3.31	여고생 1명과 여관에 투숙하여 폭행 및 성추 행함	자퇴
학생 對 학생	00고	엄00 외 3 명	성폭력	07.5.19	5월19일 아침 8시경 엄모 외 3명이 집단 성폭행함	자퇴
학생 對 학생	00중	박00 외 1 명	성희롱	07.6.24	초등학생 1명을 빈집에서 옷을 벗기고 만지 는등 성희롱함	관찰소 6개월 미만단기보호
교사 對 학생	00여 전자고	차00	성희롱	07.6~7	체육시간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여학생에 게 맞사지를 시키는 등 성희롱함	전보 조치
교사 對 학생	00초	김00	성희롱	06.4-07. 1	학생을 상대로 상습적 변태 행위를 함	파면
학생 對 미취 학	00중	최00	성추행	06.3.6	5세 여아를 5차레에 걸쳐 성추행	교도소수감 (학업유예)
학생 對 학생	00고	황00	성폭행 미수	06.4.15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침	특별교육이수 조치(2개월)
학생 對 학생	00고	조00	성추행	06.4.21	엘리베이터안에서 성추행함	사회봉사80시 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 對 학생	00고외	김00	성추행	06.5.4	집요하게 성관계 요구	가정교육10일

구분	소속	가해자	사건 구분	발생일	사 건 개 요	조치결과
	1					
학생 對 학생	00중	이00	성추행	06.6.3	옷을 벗기고 성추행함	사회봉사9일 심리치료6회
학생 對 학생	00중	최00	성추행	06.6.6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 시도	사회봉사80시 간 대안교육위탁 기관(1개월)
학생 對 학생	00고	이00	성추행	06.6.28	자위행위를 강요하는등 남학생을 성추행함	교내봉사7일
학생 對 학생	00고	송00	성추행	06.7.4	성추행	특별교육이수 불이행으로 퇴학
학생 對 미취 학	00중	김00	성추행	06.7.6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	피해자 One-stop의뢰
학생 對 학생	00고	신00	성추행	06.8.28	음주 후 우발적 성추행	특별교육7일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임001인	성추행	06.9.09	음주 후 우발적 성추행	특별교육 One-stop의뢰
학생 對 학생	00고	양00외1인	성추행	06.9.18	동영상 촬영 후 유포(희롱)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	성관계	07.3.23	가출 후 우연한 만남과 성관계	자퇴처리
학생 對 학생	00중	채00	성폭행	07.3.03	음주 후 우발적 성관계	자퇴처리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00고	김00외2인	성폭행	07.4.23	선후배 관계로 빈집에서 성관계	전학및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00중	육00외3인	성폭행	07.4.24	평소 친분관계로 빈집에서 성관계 시도 미수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	성폭행	07.4.24	빈집으로 유인 강제 성행위 시도 미수	전문기관상담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	성추행	07.5.15	가해자가 지진아로 성추행 행위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외2인	성희롱	07.5.21	휴대폰 동영상 촬영 후 유포(희롱)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정00	성추행	07.6.04	동성 후배 남학생 신체 만지는 행위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중	황00외5인	성희롱	07.6.12	동료간 강제 옷벗기는 행위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	성추행	06.10..2 3	쉬는시간 남자 화장실로 유인 성추행	전출
학생 對 학생	00고	강00외 1	성추행	06.11.21	폭력 및 퇴폐행위	전출, 교내봉 사
학생 對 학생	00고외 6	이00외 13	성폭행	06.8-07. 2	중학교 선후배로 방학중 성폭행	전출, 특별교 육
학생 對 학생	00고	오00외 2	성폭행	06.8-07. 3	타학교 여학생 성폭행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고00외 2	성폭행	07.2.23	중학교 동창으로 1회 성폭행	졸업직후라 조치못함
학생 對 학생	00고	박00	성폭행	07.4.2	여자친구를 남자친구와 성폭행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민00	성폭행	06.5.16	저녁 9시 30분 00도서관 인근 야산에서 중	불구속(교칙에

구분	소속	가해자	사건 구분	발생일	사 건 개 요	조치결과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여 경찰서 강력1팀에 체포?	의거 특별교육 후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고	김○○	성폭행	06.5.18	다모임채팅을 통해 교제 중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뒤에도 강압적으로 2차 성관계를 갖고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음	특별교육후 퇴학(1명)
학생 對 학생	○○고	최○○외 4명	성폭행	06.5.23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 “술다이 게임”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 함	전원 구속 (5명)
학생 對 학생	○○고	강○○외 1명	성폭행	06.10.09	단체 미팅으로 알게 된 중 3년 여학생을 담배불로 팔과 허벅지 위협 강제로 성폭행	구속
학생 對 학생	○○고	이○○	성추행	06.3.5	엘리베이터에서 도움청하는 척 접근 성추행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김○○외9명	성폭력	06.3.25	같은 학교 학생 1명을 공원에서 성폭력	전원 자퇴
학생 對 학생	○○중	안○○	성추행	06.4.21	무단결석(가출)중 초등생 성추행	특별교육이수
학생 對 학생	○○고	이○○	성추행	06.5.28	노래방에서 성추행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정○○외4명	성폭력	06.6.3	평소 알고지내던 후배 성폭행	전학
학생 對 학생	○○고	장○○	성폭력	06.5	학원에서 알게된 후배 성폭행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박○○외2명	성폭력	06.6.9	동급생 2명 성폭행	보호관찰
학생 對 학생	○○중	김○○외5명	성폭력	07.1.14	학교내 야외체험학습장에서 성폭력 발생	1명전학,1명특별교육, 4명기타(보호감호)
학생 對 학생	○○중	김○○외5명	성폭력	07.2.11	아파트 옥상 및 야산에서 성폭력	2명전학, 4명특별교육이수
학생 對 학생	○○고	서○○외6명	성폭력	07.2.23	아파트에서 가출여중생 집단 성폭력	7명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중	이○○외5명	성폭력	07.2.27	야산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발생(사망)	6명기타(소년부유치)

참여정부 성매매·성폭력 예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V

성매매·폭력예방을 위한 향후과제



1. 성매매 예방을 위한 향후과제

1) 성매매방지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 현장지원센터에서 탈매매 지원이 끝남 후 주거와 자활단계로 직접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쉼터 입소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 효과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수사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등 지역단위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함. 이는 정보교류를 통한 효과적 지원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임.

2) 상담원 지원 대책 마련

- 탈 성매매 지원은 사회복지적 지원 유형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 형태임. 더욱이 현장지원센터의 업무환경이 집결지 내에 있고, 사업의 일부는 집결지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변안전도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상담원의 이직이 잦은 편임.
- 따라서 상담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상담 역량을 강화해야 함.

3) 경찰단속 강화 필요성

- 일부지역에 성매매 여성유입이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형식적 단속태도와 무관하지 않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찰의 단속이 집결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필요조건이므로, 실질적인 경찰 단속의 강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성매매 범죄 수사 교육을 강화하고, 전담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범죄 자료의 수집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4) 생애주기별 성매매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 대상집단별로 적절한 성매매 시책에 대한 홍보 및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학생, 군인, 공무원, 일반인 등 각각의 성격에 맞는 집단별 성매매 방지 홍보물을 제작·배포해야 함.
-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이 필요함. 청소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상담과 예방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학교에는 성매매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5) 국제성매매 방지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성매매와 인신매매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위해 국내·외 여성 지원단체 및 관련 대사

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업소에 고용된 외국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성매매방지특별법, 성매매예방정책, 긴급구조 등에 대한 교육홍보물이 제작 배포되어야 함.

6)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유통방지활동 강화

-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고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상시 심의제도를 추진해야 함. 포털사이트 사업자들의 공동자율심의기준을 마련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정화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 해외에서 제공되는 불법 한글사이트의 국내유입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한글불법사이트를 국내ISP가 국제관문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팝업창, 메신저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스팸전송 차단기술을 개발하여 음란 스팸메일의 확산을 차단하고,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함.

2. 성폭력예방을 위한 향후과제

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있음.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극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심리적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적·법률적 지원이 필요함. 피해자들에게 심리적·법률적·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성폭력 후유증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화해나가야 함.
- 무료 법률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지원의 효과적 운영과 시행을 위한 관련단체, 관련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2) 여성폭력관련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피해자 중심의 one-stop 지원서비스를 구축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통합적 지원서비스체계를 만들어야 함.
- 성폭력 전담 수사인력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성폭력예방지원센터에 가장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함. 성폭력은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4) 성희롱 예방정책의 체계화

- 성희롱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관별 자율 방지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실시간 실적 확인,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상시적인 성희롱 예방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함.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 성폭력 가해자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선, 교정시설에서 정신과적 도착 증세를 안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치료감호 형태의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VI

참 고 문 헌



- 모니카 오코너, 크레인 힐리,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연관관계에 관한 보고서」, 2006쪽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2006
- 여성가족부, 「성매매 여성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한 대안모색」, 여성인권 중앙지원센터, 2007
-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심리학회,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대안모색」, 2007.4
- 여성가족부, 「2007년 성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 보고서」, 2007
- 안명옥, 「성폭력과 의학」, 2000
-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가이드 북」, 2006

VII

부 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6369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4. 5.

발 의 자 : 안명옥·신상진·이성권
유승민·이계경·황우여
고조흥·문 화·안상수
배일도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해외성매매’가 증가하면서 국가이미지 실추는 물론 교민사회 위상도 함께 추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성매매’는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성매매’를 방지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의 미비로 인한 것임.

이에 ‘해외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협력 증진 및 관련 부처간 종합대책 추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 강화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
- 나. 국가가 해외성매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다. 국가는 국외에서 성매매피해자가 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국내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해외성매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는 국외에서 성매매피해자가 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국내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당해 국가를 비롯하여 각 국가들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생략)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현행과 같음)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해외성매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 ③ (생략) <신 설>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가는 국외에서 성매매피해자가 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국내로의 안전한

현행	개정안
	<u>복귀를 위해 당해 국가를 비롯하여 각 국가들 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68
------------	------

발의연월일 : 2007. 4. 5.

발 의 자 : 안명옥·신상진·이성권
유승민·이계경·황우여
고조흥·문 희·안상수
배일도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등 해외에서 성매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민사회의 자존심과 위상도 함께 추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에 이와 같은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를 방지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의 미비로 인한 것임.

이에 ‘해외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협력 증진 및 관련 부처간 종합대책 추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 강화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
- 나. 공공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국가는 해외 성매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라. 국가는 해외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국가들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설치·운영해야 함을 추가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피해자들의 국내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1호 신설).

법률 제 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이하 “해외성매매”라 한다)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해외성매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초·중·고등학교의 장은”을 “공공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는”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교육”으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국가는 해외성매매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당해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피해자들의 국내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한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생략)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현행과 같음)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이하 “해외성매매”라 한다)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해외성매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공공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는 ----- ----- ----- -----성매

현행	개정안
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③ (생략) <신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③ (현행과 같음) ④국가는 해외성매매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당해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10. (생략) <신설>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 1.~10. (현행과 같음) 1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피해자들의 국내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한 지원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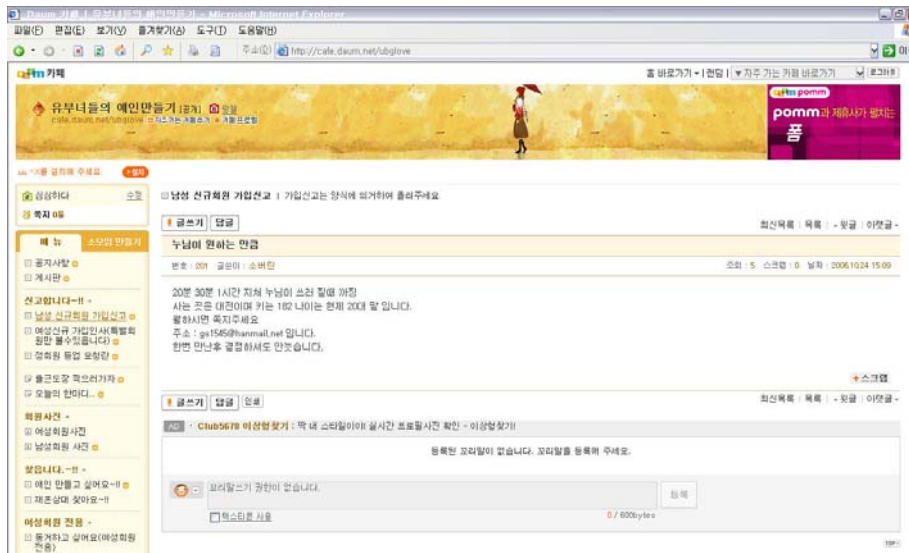
3. 해외 성매매사이트

o 국내 사이트

연번	URL	유형
1	http://www.clubmerit.com/bbsmerit/merit_main.htm	유흥업소 홍보
2	http://bamalba.com	유흥업소 구인구직
3	http://www.howalba.com	“
4	http://www.madamq.co.kr	“
5	http://www.joynjob.com	“
6	http://www.1haja.com	“
7	http://www.jobsh.co.kr	“
8	http://www.yaalba.com	“
9	http://sunhijiang.com	“
10	http://www.bamgialba.com	“
11	http://www.shesalba.com	“
12	http://www.nagayo.com	구인구직, 커뮤니티
13	http://home.dreammail.co.kr/cho1	유흥업소 홍보
14	http://semialba.com	유흥업소 구인구직
15	http://semialba.co.kr	“
16	http://www.nagayoalba.com	“
17	http://bamgi.co.kr	유흥업소 커뮤니티
18	http://www.vip24.com	“
19	http://www.wolflife.com/	남성포털(밤문화)
20	www.190club.co.kr	화상채팅
21	www.camplay.co.kr	“
22	www.ucanjoy.com	“
23	www.soracam.com	“
24	www.tingstory.com	“
25	www.hanating.co.kr	“
26	www.7979club.com	“
27	www.norazocam.com	“
28	www.sysy.co.kr	“
29	www.nowopen.co.kr	“
30	www.xxgo.co.kr	화상채팅 홍보

4. 불건전 만남유도 관련 사이트 사례

○ 카페



○ 화상채팅 사이트



o 화상채팅 사이트 홍보

www.5058.li.to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주소(S) http://www.888.sk.to/

합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합업 또는 추가 옵션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드림위즈 | 블로그 | 갤러리

로그인

나(여대생)색 잘하는 오빠야아[즉색만남]ix
http://blog.dreamwiz.com/yiya87 [+]

오늘:4 전체:943 개설일:2007.01.05

yiya87

습니다.

기존 그룹

검색

2007/03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M TAG

작성한 태그가 없습니다

저랑 화끈한 만남할 오빠 코먼^^

좋은 연연 만들어가요~~~~~~

조회 : 1099



대한민국 최고의 만남을해드리는 화상싸이트

충전은 안하셔도 충전이 딸릴수있어요!!

가입후 몸매가 마음에드시면 화끈한 만남해드릴게요
빨리행동으로움겨요..

<가입시폰인증 없음>

남성이 보고 싶은 곳 제가 가진 화상캠으로

구석구석 전부 확실하게 보여줄수있어요^^

췌~만남 해를 오빠언제와~
♡전락처 교환200%가능!!바로만남해요

폰인증없음

<http://www.live10.co.kr/partner.php?mina3&intro1&no>

저네캠은 가슴뽕뽕xxxx 찾아주세요~가다릴게요~♡♡

나랑 췌~하게 느껴봐요. 몸매 플랜으로만 ~물나지 않아요

저 폰번호 010-5858-xxxx

뒷자리는 무료가입후 저 닉네임 뒷자리거든요 찾아주삼~

실제만남서비스 [6 만 골] 올나잇 출장 까지 다 해드릴게요.

사위들 장제공수하중.252명

관련글(0) | 댓글(0) | 스크랩(0) | 추천(0)

관련글 주소 : <http://blog.dreamwiz.com/yiya87/5731434> | 관련글 작성 | 도움말

댓글/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름

●●●●

현재 0자 / 최대 500자(HTML불가) | 이모티콘넣기

댓글쓰기

블로그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방문객

pbe@t
lil66

more

친구리스트

친구가 없습니다

BLOG새글

대학 교정에 눈미...
청계천
박기영 JK김동욱...
옥정호
최정민, '파라포...
고해성, 스크린 ...

more

TOP

RSS FEED

TOP

SKIN By Dreamwiz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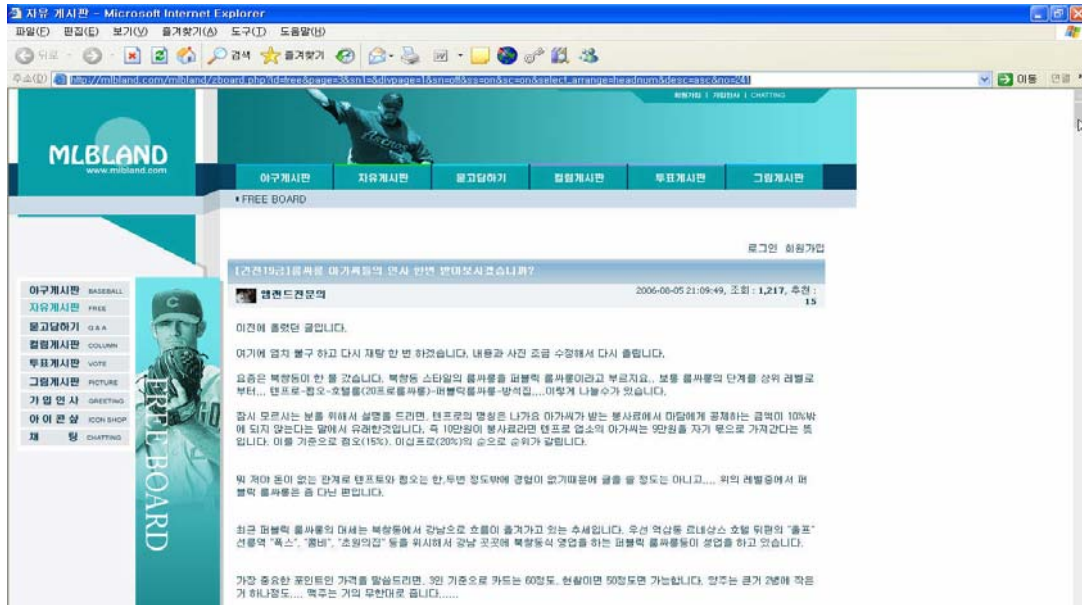
o 애인대행 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window displaying a dating agency's website. The page is in Korean and features a user profile for 'combin07' (남/28). The profile includes a photo, a bio, and a list of services offered, such as '안락SMS' (Safe SMS), '연락처' (Contact), and '이메일' (Email). The website also has a sidebar with various links and a top navigation bar.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user's profile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안락SMS', '연락처', and '이메일'. The website is designed with a pink and white color scheme.

o 구인구직 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window displaying a job recruitment website. The page is in Korean and features a job listing for 'Heba'. The listing includes details such as the company name, location, and salary. The website also has a sidebar with various links and a top navigation bar.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job listing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구인정보' (Job Information), '구직정보' (Job Search Information), and '구인구직' (Job Recruitment). The website is designed with a pink and white color scheme.

o 유흥업소 탐방 및 밤문화 기행기



o 해외서버 파트너검색사이트

- 사례-1



- 사례-2

엔조이파트너닷컴(EnjoyPartner.com) - 조건만남, 섹스파트너, 엔조이파트너 지금바로 구하기!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주소(D) http://www.enjoypartner.com/

엔조이파트너닷컴

Home Log In Site map Contact us

My Page | 파트너찾기 | 2:2 | 스페셜리스트 | 강추블 섹스걸,매너남 | 섹스매거진 | 게임존 | 핫시네마 | 에니/만화

파트너찾기 Partner Search

+ Partner Search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 회원님의 원하는 스타일의 엔조이파트너를 검색해보세요.

Best Sex Community EnjoyPartner.com

엔조이 파트너 검색

아래에서 아이디나 닉네임 또는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엔조이파트너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닉네임

※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는 아이디나 닉네임의 일부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성별: ☐ 남자 ☒ 여자

접속지역: 상관없음

나이: 20 ~ 30

가입목적: 상관없음

사건등록여부: ☒ 상관없음 ☐ 있음

찾아보기!

추천 엔조이 파트너

사진	닉네임(아이디)	나이	지역	소개	만남비용
	신바치마불(car3333)	34세	서울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골방한 여성입니다. 어떤 것이든 서로 합의하에 하는것은 변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지속적으로 만날수 있고 미혼이든 기혼이든 서로	만나서 협의
	소4조호(yiun0000)	57세	경상		비용없는 만남
	여시(qorwh1471)	42세	서울	항상웃는모습으로	10만원
	애플민트(ebate)	29세	서울	아아아~	만나서 협의
	단두지(eksanw1123)	44세	서울	확관한성격	비용없는 만남

최근 가입자 - 조건만남을 원해요

파트너 만나기

전국의 50만 엔조이파트너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정회원 가입후 5분안에 원하는 엔조이파트너 만나기

엔조이닷컴 회원만을 위한 1500여명의 포르노우미 감상

성생활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는 섹스매거진 구독권 증정

프리미엄회원이 되시면 전문 매치메이커에 의한 24시간 매칭서비스~ 엔조이닷컴 1년간 무료이용권 증정

o 모바일(채팅/미팅 메뉴)

- 사례-1

